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5494.78	↑ 코스닥	1036.73
	(+44.45)		(-10.64)
↑ 금리 (2년)	3.451	↓ 환율 (원/달러)	1502.80
	(+0.019)		(-3.50)

LG 구광모
팔란티어·스킬드시와
AX사업화 박차
02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755% 성장, 시장도 깜짝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가 1분기에 국내 기업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쓰며 반도체업황 호조세를 입증했다. 메모리 사업이 전사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완제품 사업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7일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연결 기준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1%, 755.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였던 38조1166억원보다 50.1% 많았고, 매출 역시 예상치인 117조1336억원을 13.5% 웃돌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185.0% 급증했다. <관련기사 3면>

매출 133조 전년 대비 68% 상승
4분기부터 2개분기 연속 최대기록
HBM3E·HBM4 확대 효과 반영
영업익 50조 'DS 부문' 일등공신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매출 100조원과 영업이익 50조원을 동시에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선 규모다.

실적은 반도체(DS) 부문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DS 부문에서 만5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범용 D램·낸드 가격 급등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HBM3E 공급에 이어 올해 HBM4 양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1분기 실적에

HBM3E와 HBM4 공급 확대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단순 일회성 호조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분기"라며 "AI 서버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메모리 중심 실적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해외투자은행(IB)인 씨티 역시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를 근거로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면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는 전년 동기 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는 전분기 적자에서 소폭 개선됐지만 적자 또는 소규모 흑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조원, 전장 사업을 맡고 있는 하만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적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가 다시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수요가 HBM을 넘어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규모 경쟁력이 실적에 직접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편,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된 수치로,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제

공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니다”

여야 대표 만난 **李 대통령**
李, 국민의힘에 ‘개헌동참’ 요청
장 “개헌 논의 전 연임거부 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 위기 우려 속에서 7일 만났다. 지난해 9월 오찬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말

하는 등 민감한 대화도 오갔다. 다만 장 대표가 추경안과 관련해 요구한 내용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 전 청와대 본관 내 계단 앞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자리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며 양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갠다.

이후 참석자들은 행사장 내 원탁에 둘러앉아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회동을 시작했다. 사진 촬영 때는 화기에애했지만, 모두발

언에는 의견 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마뚝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한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syj@metro



트럼프 “합의 불발 시 모든 교량·발전소 파괴”

韓시간 오늘 오전 9시 ‘합의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강조
이스라엘, 이란·레바논 독자 공격

중동전쟁 6주차 진입을 앞두고 전 세계는 다시 백악관발 언사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 이란 동맹전선에 가담 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휴전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지속 중이다. 미군과는 별도로, 이란 및 레바논 등에 대한 독자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간 전쟁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이에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의중과 관계없이 페르시아만 집결 병력의 철수를 결정

할지도 관건이다. 아팰든 백악관이 추가로 연장에 설정한 시한이 도래했다. 미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8시 (한국 8일 오전 9시)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워싱턴 D.C.에서 6일 오후 1시(서울 7일 오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에게 7일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때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워싱턴 7일) 자정까지(4시간 동안) 이란의 모든 교량이 전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라 전체를 하룻밤 사이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밤은 바로 내일 밤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 일부는 우리가 석유를 비롯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의 자유 이동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합의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 선박 통행을 막지 말고, 만약 기회를 부선했다면 즉시 모두 제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 측 반응도 바로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담 알안바아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박다른 골목에 갇혀 미군의 연이은 패배를 정당화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김부겸 “홍준표, 저 때문에 곤욕 죄송…대구, 새 활력 만들 인물 필요” /사진 뉴시스
▲유영하, 컷오프 주호영 무소속 출마 만류…“보수 재건 위해 희생 필요”

▲손혜원 전 국회의원, 목포시의원 출마 선언…“민주당 텃밭” 정면 도전
▲이준석 생방송서 ‘하버드’ 졸업 인증…“전한길 선처 없다”

▲창원시장 선거 5파전 확대…국힘 공천 탈락 후보들 탈당 후 출마
▲“박원순 시즌2 향해 가는 오만, 권력 집착만 있어”…오세훈, 여권 주자 비판

구광모, 팔란티어·스킬드AI 경영진 회동... AX 사업화 박차

〈LG그룹 회장〉

구 회장, 美 등 글로벌 경영 행보
AI 서버·로봇 포트폴리오 확인
LG테크놀로지 투자 전략 점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미래 성장 전략을 재정비하고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AI 혁신의 최전선인 실리콘밸리를 찾아 그룹의 'AX(AI 전환)' 가속화를 본격화했다.

LG는 구광모 회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톱 티어 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를 만났다고 7일 밝혔다. 또 세계적 권위의 로봇 지능 개발 기업 '스킬드AI'의 디팍 파탁 및 아비나브 굽타 공동 창업자도 차례로 만



구광모 (주)LG 대표(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피지컬AI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아비나브 굽타 스킬드AI 공동 창업자와 휴머노이드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LG

났다.

이번 회동은 LG의 AI사업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 그룹의 미래 포트폴리오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팔란티어와 스킬드AI는 각각 기업 운영체계의 AX, 피지컬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

를 받는다.

구 회장은 먼저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 등 경영진과 만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인 '온톨로지(Ontology)' 기술을 논의했다. 온톨로지는 기업 내 산재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구 회장은 특히 팔란티어의 기술이 실제 제조 및 산업 현장에서 거둔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를 LG의 생산 공정에 벤치마킹하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AX 사업화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은 이어 로봇 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디팍 파탁과 아비나브 굽타가 창업한 스킬드AI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직접 스킬드AI의 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시연을 참관하며 피지컬AI 생태계가 산업 현장에 미칠 파급력을 점검했다. 스킬드AI는 로봇의 '두뇌'인 파운데이션 모델(RFM)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LG는 지난해 계열사인 LG CNS가 스킬드AI와 국내 최초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LG CNS는 스킬드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LG CNS는 향후 스킬드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자체 로봇 솔루션 기술력을 결합해 제조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서비스 사업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LG이노텍은 스킬드AI와 부품 공급 관련 협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LG 그룹의 투자 허브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김동수 CEO(부사장)도 찾아 미래 투자 전략도 점검했다.

구 회장은 "AI 패러다임 전환 속 선제적 투자로 그룹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최근 사장단 회의에서도 "AX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AICC 연평균 20%대 급성장... 소비자 만족도는 '제자리'

〈인공지능 컨택센터〉

상담 업무 자동화... 운영비 절감 효과
소비자들 오답 응대 등 피로감 호소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가 통신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서비스 품질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도입 기업들은 상담 자동화를 통해 막대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상담원 연결조차 어려운 구조'와 반복되는 오답 응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기술과 체감 만족도 간 괴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CC가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서비스 품질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CC는 단순한 AI 콜센터를 넘어 알고리즘 기반의 AI 시스템이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며 상담 업무를 자동

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단순한 ARS 수준을 뛰어넘어 챗봇, 포맷, 음성 텍스트변환(STT)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24시간 중단 없는 응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AICC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AICC 시장은 포춘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2025년 24억1000만 달러(약 3조 2535억 원)였으며, 2026년 29억8000만 달러(약 4조 230억 원)에서 2034년 135억2000만 달러(약 18조 2520억 원)로 성장해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20.8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AICC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막대한 운영비 절감에 있다.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콜센터 운영비 중 일부만 AI로 대체해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통신업계는 AICC 시장의 선두 주자로 발 빠르게 움

직이고 있다.

KT는 2018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한 AICC 솔루션 'A' Cen Cloud(에이센 클라우드)를 통해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성인식과 합성, 텍스트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센터 업무 전반을 최적화한 이 서비스는 현재 국내 30여 개 대형 금융사를 포함해 4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용 중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해 60여 개 행정·공공기관에도 대국민 행정 업무 및 공무원 당직 근무 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AICC 사업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AICC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는 50% 이상의 고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 및 LG AI 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AI 에이전트 CC'를 출시했으며, 초·중·고 교사의 행정 효

율화를 위한 전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AICC가 소비자들의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중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AICC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의 54.2%가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상담원 연결 매뉴얼을 찾기 힘들게 설계된 '디지털 다크 패턴'이다. AI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강제로 AI 관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통화 연결 포기율이 높아지고, 체류 시간만 길어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AI의 불충분한 응대에 화가 난 고객들의 민원 제기와 고난도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타나는 소비자 불만족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KDI "경기위축 가능성 커져"

'하방위험 확대' 경고 수위 높여

국내 경제가 중동 사태로 인해 경기위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여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3월 들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KDI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동전쟁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라는 문구를 쓰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심리가 악화했다.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은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112.1→107.0)의 경우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물가 역시 향후 상방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2.0%)보다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 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투자 부진도 다소 완화됐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1.2%)은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됐으나,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3월 수출(48.3%)은 ICT 품목이 호조를 이어가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140.5%)와 컴퓨터(176.6%)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가 급등 탓에 석유제품(48.1%)도 크게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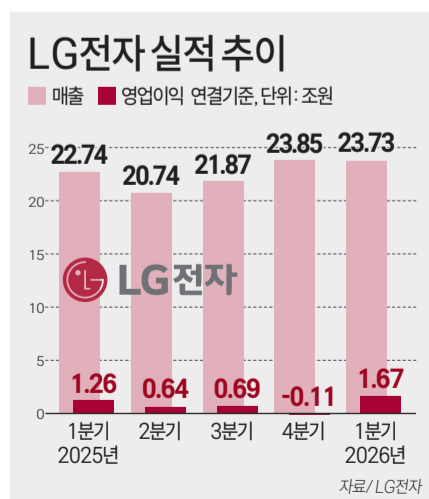
LG전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B2B 전환 전략 빛났다

영업익 1조 6736억... 흑자전환 성공

LG전자가 올해 1분기 생활가전과 전장(B2B) 사업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며 직전 분기 적자에서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 67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 영업손실 1090억 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증권가 컨센서스였던 영업익



익 1조 3000억원대 중반을 상회하며 수익성 개선 폭이 예상보다 컸다.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HS)은 프리

미업과 불륜준을 동시에 공략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 판매와 가전 구독 비중 확대도 외형 성장에 힘을 보탤다. 플랫폼·구독·온라인 판매 등 고수익 사업이 호실적을 뒷받침했다는 점은 이번 분기의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전장(VS) 사업은 수주잔고 기반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적극적인 원가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고, 해외 고객사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상 고환율 기조도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 사업 역시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운영 효율화 기조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webOS 플랫폼 사업 성장세도 이어지며 TV 사업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냉난방공조(ES) 사업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LG전자는 히트 펌프와 액체냉각 솔루션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LG전자의 B2B 전환 전략이 본격 성과를 낸 분기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생활가전에 더해 전장·플랫폼 등 B2B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업 체질 전환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ngja tea@



metro



시메모리 훈풍 올라타고 'HBM 공급 효과' 본격화

1분기 잠정매출 133조·영업익 57조
분기 매출·영업익 모두 사상최대
HBM·D램 가격강세 반도체 호황
엔비디아 추격 가능성 등 시장 관심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역대 최대 잠정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분기 실적의 새 역사를 썼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HBM 공급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엔비디아 추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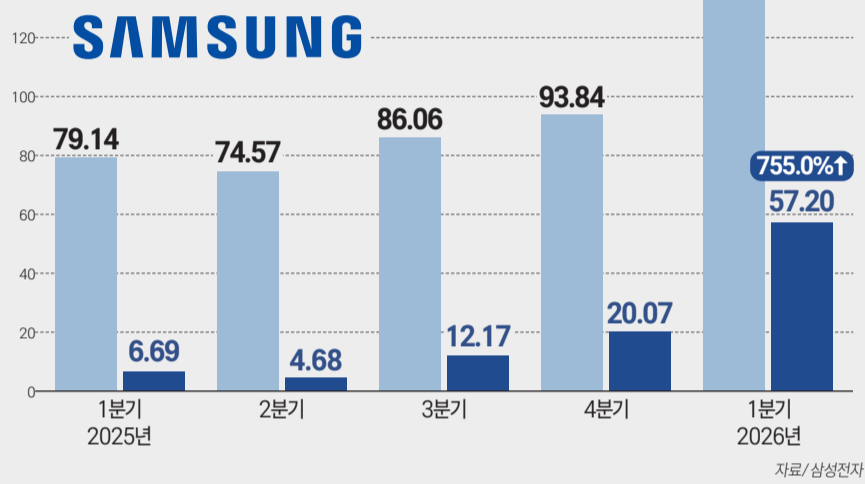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의 57조 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한 분기 만에 실적 규모를 세 배 가까이 끌어올린 수준이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견인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DS)

삼성전자 실적 추이

■ 매출 ■ 영업이익 연결기준, 단위: 조원



부분이다. 업계는 DS 부문에서만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I 붐으로 인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가량 급등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세대 제품인 HBM3E를 글로벌 빅테크에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6세대 HBM4 양산 공급을 본격화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실적에는 HBM3E와 HBM4 공급 확대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다바이스경험(DX) 부문은 반도체와 온도차를 보였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와 TV·가전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은 사실상 반도체 사업이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 실적의 지속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95%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약 6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순위가 글로벌 2위까지 뛰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KB증권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연간 영업이익의 추정치 294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며, 마이크로소프트(245조원), 구글 모회사 알파벳(241조원), 애플(223조원), 아마존(150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27조원, 엔비디아를 357조원으로 추정하며 양사 격차가 약 3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의 기업가치 격차 역시 한층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수요가 범용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실적 호조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관건은 하반기까지 가격 강세와 수요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지는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2나노 고도화 속도... 파운드리 반등 대비

2나노 열문제 풀 기술로 경쟁력 높여
테일러랩 시운전·장비 반입 막바지
테슬라·퀄컴 등 첨단칩 수주 기대감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적자 늪을 지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반등 여부가 다음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2나노(nm·10억분의1m) 공정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테일러랩 수주 확대를 병행하는 등 반등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7일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2026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극미세 공정의 최대 난제인 열 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칩 하단에 위치했던 온도 센서를 상단 배선층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당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나노 등 최첨단 극미세 공정에서 발열과 면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도 센서 설계 자산(IP)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테일러랩이 최근 시운전 단계에 진입하며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테스트가 시작됐으며 클린룸에는 식각·증착 등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순차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2나노 공정에는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을 생산한다. 해당 칩은 갤럭시S 26 일반·플러스 모델과 올해 출시될 플립 신제품에 탑재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AI칩 'AI5'와 'AI6'도 양산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테슬라형 AI칩 매출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퀄컴의 신규 AP 수주에도 성공해 2나노 공정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AP 신제품을 활용하는 고객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용 주문형 반도체(ASIC)와 미국 자율주행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2나노 칩 주문도 확보했다.

1.4나노 공정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

다. 당초 내년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수출 안정화 등 기술적 과제를 반영해 양산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030년에는 1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TSMC가 2028년 하반기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아직 1나노 생산 로드맵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2나노 공정이 가능한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 불과한 만큼 양사의 1나노 공정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율과 기술이 안정화된 4나노 공정에서 HBM4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HBM4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코어 다이와 파운드리 4나노 핀펫(FinFET) 기반 베이스다이를 적용했다.

테일러랩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테일러랩 일부 구역이 임시사용승인(TCO)를 취득한 만큼 전문 엔지니어의 현지 파견과 신규 인력 채용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에는 180건의 채용공고를 올리며 공정, 계측,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인프라 등 라인 운영에 중요한 핵심 포지션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어닝서프라이즈'에 목표주가 줄상향

1분기 최대 실적, 이익전망 확대
메모리값·AI 수요에 눈높이 높여
금리·기술 변수·중동 리스크 여전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 기대가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주가 상향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다만 기술 변수와 가격 흐름, 금리 환경 등은 단기 투자심리를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의 57조 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자 매출 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최하다.

증권가는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익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상승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탑재량 증가로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 전망도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327조원, 488조원으로 제시하며 기존 대비 49%, 62% 상향 조정했다. 김 본부장은 "이익 추정치가 현실화

될 경우 내년 글로벌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업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D램과 낸드 평균판매단가 상승 폭이 기존 추정보다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에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황 개선 기대는 장비·소재·부품(소부장) 업종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날 리노공업(3.98%), 이오테크닉스(4.30%), 원익IPS(1.69%) 등이 상승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을 계기로 투자심리가 전환되고 있다"며 "신규 투자 확대와 공정 고도화 흐름을 감안하면 소부장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52주 최고주가 대비 약 12% 가까이 하락했지만, 증권가는 오히려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6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3만원, 미래에셋증권은 3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구글의 메모리 효율화 기술 '터보퀵트'와 D램 가격 흐름, 미국 금리 방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국민연금 9.5% 시대... “보장 확대” vs “재정 안정” 격돌

연금과 생존전략

연금개혁 현 주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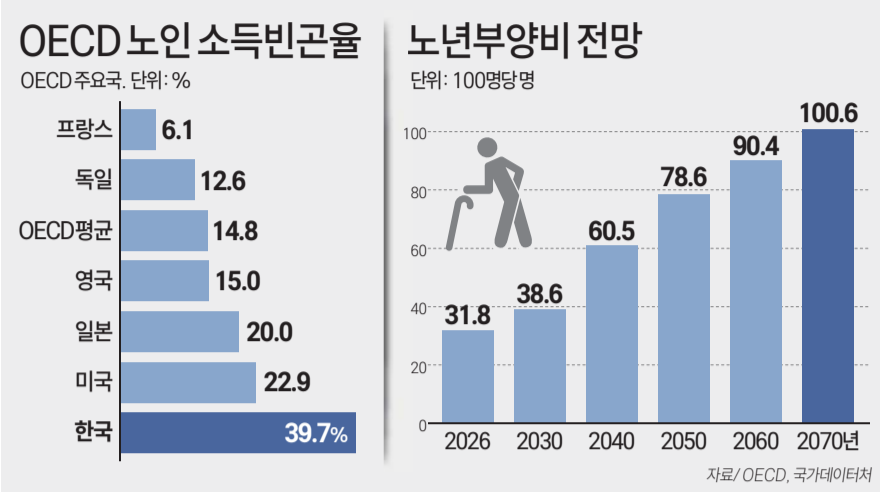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올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에 돌입했다. 작년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3차 연금개혁에 따른 인상이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 수준으로 유지됐던 보험료는 올해부터 9.5%로 올랐고,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기존 40% 수준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적용된다.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보험료율 조정을 비롯한 개혁을 이어갈 전망이다. 기대수명 연장과 출생률 감소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인 국민연금 기금도 점진적인 소진이 불가피해서다.

◆ 연금개혁,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은 만 18~60세의 국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입하면 이를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을 조성 및 운용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년간 연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연 평균 10.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기금 적립액은 145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납입액보다 지급액이 많으면 연금 지급 재원인 연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연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



‘더 내고 더 받는’ 3차 연금개혁 보험료, 2033년 13%까지 올릴 전망 기금소진 2056년 → 2064년으로 與 “노인 빈곤률 고려 보장성 확대” 野 “재정 안정성 먼저 확보해야”

다.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파르게 커진다.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3%의 보험료율과 70%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졌었다. 매달 소득의 3%씩 40년을 납입하면 65세부터는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70%를 지급한다는 약속이다. 1988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70.7세에 그쳤던 만큼 높은 소득대체율을 약속할 수 있었다.

1차 연금개혁은 지난 1998년 단행됐다. 3% 수준이었던 보험료율은 9%까지 올랐고, 70%의 소득대체율은 60%까지 낮추는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이었다. 기

대수명이 74.7세까지 늘었고, 1988년 1인당 1.55명 수준이던 합계출생률은 1996년 산아제한 폐지에도 1998년 1.46명까지 하락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서다.

2007년에는 2차 연금개혁이 단행됐다. 2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매년 1%p씩 인하해 40%까지 낮추는 ‘그대로 내고 덜 받기’ 개혁이다. 하지만 2007년 1.26명이었던 출생률은 2018년부터 1명보다 낮아졌고, 지난 2024년에는 0.75명까지 내렸다. 반면 기대수명은 83.7세까지 늘었다. 고령자들이 연금을 받아가는 기간은 늘었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세대는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더 내고 더 받는’ 3차 연금개혁이 진행됐다. 2056년으로 전망됐던 기금 소진은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이후 국내 증시가 역대급 상승을 지속하며 기금소진이 수년 더 늦춰졌다. 하지만 연금을 받아갈 사람에 비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인구구조가 형성된 만큼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여·야

도 3차 개혁 당시 해당 개혁안을 ‘불완전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 소득보장 vs 재정안정

여·야는 지난해 3차 연금개혁 직후 여·야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금재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처리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국내 66세 이상 소득 빈곤율 39.7% 미래세대, 노인인구 부양비 부담 퇴직연금·기초연금 개혁 논의 확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돼야

연금특위는 최근 배달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편입, 정년 연장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대의 상향 등의 안건을 논의 중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야 공감대가 있고 선거에 부담이 덜한 안건부터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당의 ‘보장확대 우선’ 방안과 야당의 ‘재정안정 우선’ 방안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방향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높은 노인 빈곤률을 고려해 보장성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

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8%보다 2.7배 가량 높다. 소득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50% 이하인 상황을 말한다. 1988년에야 공적 연금제도가 마련되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가 많고, 고령자의 자산은 부동산에 치중돼서다.

반면 미래세대의 부담도 막대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0명당 14.8명이었던 노인인구부양비는 2026년 31.3명까지 늘었다. 생산인구(15~64세)가 부양하는 노인이 16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현재 출생률이 유지되면 오는 2070년에는 노인부양인구비는 100.6명까지 치솟는다. 높은 노인 빈곤률에도 국민연금의 보장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개혁 선택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개혁 논의가 확대됐다.

퇴직 시 목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등 수익률 제고 방안도 본격적인 입법을 앞두고 있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재정안정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ODM 3사, 엇갈린 행보... 글로벌 전략 재수립

(제조개발생산)

K뷰티 지도 바뀐다

한국콜마, 해외법인 철수... 국내 복귀 코스맥스, 中 ‘뷰티밸리’ 핵심 공략 코스메카, 북미시장서 성장 창출 나서



한국콜마의 세종 기초화장품 공장 전경. /콜마그룹

K뷰티 열풍의 실질적 주역인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콜마는 수익성이 낮은 해외 법인의 비중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코스맥스와 코스메카코리아는 해외 현지 지배력을 강화한다.

7일 국내 뷰티 업계와 최근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이 부진하다. 지난해 중국 법인 매출은 1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급감했다.

미국 법인 역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미국 법인 매출은 5.3% 줄어든 549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자는 134억원으로 전년 60억원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캐나다 법인 매출은 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축소됐고 영업손실은 54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해외 법인이 수익성 확보에 난항에 빠지자,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은 철수해 국내 복귀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산업통상부에서 한국콜마는 2026 첫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세종시와 전의 일 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물량에 역량을 집약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코스맥스는 현지 밀착형 전략을 고도화해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코스맥스는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시를 통해 코스맥스차이나가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하이시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인증으로 코스맥스는 상하이시로부터 우선 설립 및 임대료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스맥스는 중국 ‘뷰티 밸리’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하이 신사옥 준공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코스맥스의 현지화 행보는 실적 수치로도 증명됐다. 코스맥스 중국법인은 지난해 연간 매출 6327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0.2% 성장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북미 시장에서 K뷰티 주인 자리를 노린다. 코스메카코리아 미국법인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168억원, 영업이익은 374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9%, 99%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미국법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이다.

코스메카코리아 미국 사업 성장에는 잉글우드랩 인수가 뒷받침됐고 최근 코스메카코리아는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잉글우드랩 지분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늘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정유사, 두 달간 ‘대체 원유’ 1.1억 배럴 확보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비축유 스왑 속도, 나프타 지원 검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정유 4사가 4~5월 두 달간 대체 원유 1억10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4월 5000만 배럴에 이어 5월에도 계약 기준 60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 도입량 대비 4월 60%, 5월 70% 수준이다. 도입 국가는 사우디, 미국,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콩고, 가봉, 캐나다 등 17개국이다. 여기에는 강습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서 확보했다는 2400만 배럴도 포함돼 있다.

민간 정유사의 수급을 돕기 위한 비축유 스왑(대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4개 정유사의 신청 물량은 3000만 배럴을 넘어섰으며, 이번 주까지 총 800만 배럴 규모의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이미 2건의 계약이 완료돼 비축유 이슈가 끝났으며, 금주 내 4건 이상의 추가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고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사용 가

능한 재고를 확보했으며, 대체 수입선을 통한 시제품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다만 주사기 포장 원료 일부에서 부족 조짐이 있어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병원 측에는 과도한 선주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핵심 산업 소재인 ▲반도체용 헬륨(미국산 대체 완료)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말레이시아·인도 등 확보) 등은 현재까지 공급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가 상승에 민감한 페인트와 농업용 필름, 식료품 포장재 등은 범부처 TF를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 “4월 나프타 수입 예상 물량은 77만 톤으로 예년의 70% 수준이지만, 국내 생산분을 합치면 평시 대비 80~90%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을 통한 ‘차액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일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및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산업 위기 지역 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4.2%)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수 기자 hys@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해외반응은 좋은데
수출경험이 부족해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누가 우리회사에
맞게 도와줄 순 없나요?”

**전국에서 만나는
기업 전문가 및
중소기업 전담 SME지점장**



**KB국민은행
기업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문제네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 원 지원 계획**

“회계에 송금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요”

**복잡한 자금관리가 쉬워지는
ERP 연계 बैं킹 시스템**

국민적 스케일의 금융 지원부터 수출 전략, 경영 관리까지-
KB국민은행이 기업에 필요한 모든 성장의 순간을 함께 합니다

기업의 모든 순간, 국민이 있다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90호(2026.3.23.), 유효기간 2026.3.23.~2027.3.22.까지



중동 위기 장기화... 정부, 나프타 확보·선박 안전 총력 대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3국 순방
선박 26척 선원 안전·통과방안 협의
'신호등 시스템', 핵심품목 수급관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방문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2400만배럴을 최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실제 (UAE에서) 출발한 원유, 나프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 원유가 61%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UAE에서 2400만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원

반영돼 있는데 정유사와 국회의 소통 과정에서 그 비율을 더 높여주자는 여

당의 제안도 있었다.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유예도 있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급 불안이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제조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대체 공급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헬륨의 역시 중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 확보한 4개월분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체 수입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헬륨은 미국산(産)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합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다. 그분들로서는 배 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 하선을 원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현지 공관에서 승하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관련 선박 등이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는 2000척이 넘고, 80척 정도가 나오고 50척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선박은) 일본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인도 배다. 수많은 배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은 국익을 위해 별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26조 추경 공방... 여야, 재정방향 놓고 충돌

與, 경제 위기 대응 위한 추경 강조
野,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비판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 담겼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지금 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번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항목을 거론하며 "보증금 피해로 주거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이 고유가, 고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역대 정부 통틀어서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나온 문화관광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에는 "(경제가 어려우

면) 국민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영화, 관광, 숙박, 문화소비"라며 "정부가 취약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3892억원 가량을 편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역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대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5월13일 당시 윤석열 정부가 초과세수 53조로 만든 59.4조원짜리 역대급 규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눠줘야겠다"라며 "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래세대의 빚을 우리가 다시 늘리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중동의 에너지 위기로 시작된 추경의 우선순위는 에너지 대책이 돼야 한다"며 "원유가 막히면 반도체도 막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는 생각보다 '막 쓴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세청 체납관리단, 영화산업 제작 지원 등 예산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와 농어민들을 우

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17개 시도의 모든 지자체가 20%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지방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농업용 유류나 무기질 비료 등 실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국민의힘, 경기·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역량 있는 후보 내세우기 위한 판단
부천시장에 박내경 우선 추천
강릉은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공모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인만 등록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는 판단

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주고,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 교감이 있는 경기지사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

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가 두 명인데, 만에 하나 경선을 하면 포기하고 사퇴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당내 경선을 역동성을 가지게 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자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2명이 경선을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선으로 (한다)"며 "마지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공관위는 이날 부천시장 후보로 박내경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우선 추천했다. 강릉시장 경선은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한다. 권혁열·김동기·심영삼·최익순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뒤 1위 후보자를 뽑고, 현역인 김홍규 강릉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북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추경 풀어 민생·유가 충격 완화... 금리 결정은 '신중모드'

한국은행, 오는 10일 금통위 물가·소비·수출 안정세 보이지만 환율 리스크에 '금리인하' 어려워 시장서는 '동결' 전망 지배적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커지자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통화보다 재정으로 먼저 쏠리고 있다.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세워 민생·유가 충격 완화에 나서는 사이,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물가와 성장, 환율과 금융안정을 함께 점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연 2.50%)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성장·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대응 10조1000억원, 저소득층·청년 지원 2조8000억원, 중동 충격을 받은 기업 지원 2조6000억원이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별도 국제 발행 없이 1조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규모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추경을 서두르는 배경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민생과 기업 비용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재정으로 먼저 완충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상황을 "가장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정부는 추경안의 4월 10일 처리를 강조해 왔다. 7일엔 대통령 특사가 카자흐

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유·나프타 장기 조달을 논의하기로 했고, 정부는 4~5월 물량으로 대체 원유 1억10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정 대응과 함께 실물 공급망 확보까지 병행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카드를 쉽게 서두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는 대체로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성장은 소비 및 수출 중심의 개선세를 이어가지만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은 중동 관련 리스크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물가·성장·금융안정 흐름을 함께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만 놓고 보면 완화 논리가 생길 수 있지만,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까지 같이 봐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성급히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표면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어 보일 수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시장 예상치 2.4%를 밑돌았고, 근원물가도 2.2%로 2월의 2.3%보다 낮아졌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110.19달러, 서부텍사스원유(WTI)가 113.31달러 수준까지 올랐고 한국은행도 3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더라도 유가 상승 여파로 4월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3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한은의 부담이 줄었다고 보긴 어려운 이유다.

지금의 정책 조합은 '재정 선행', '통화 신중'이다. 정부는 유가 충격과 민생 부담을 당장 완충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물가·환율·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더 점검해 금리 카드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추경 처리 목표 시점인 4월 10일과 한국은행 금통위가 같은 날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정책 대응의 무게중심이 재정과 통화 가운데 어디에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것"이라며 "생각보다 올해 경제가 체감상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카드 News

KB국민카드

전통시장 매출액·건수 전년비 16%·18% 증가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전통시장 매출액과 매출 건수가 지난 2022년 대비 각각 16%, 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석은 지난 4년간 전통시장 관련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체크카드 약 3억3000만 건과 약 3000만 명의 누적 방문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방문 회원 수도 9% 상승했다. 전통시장 유효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8000개로, 2022년 대비 약 4000개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에서 가공식품(44%), 커피·음료(40%), 분식·간식(35%) 순으로 매출 증가 폭이 컸다. 가공식품과 커피·음료의 경우는 가맹점 수도 각각 22%, 11% 증가했다. 전통시장 내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관련 업종의 입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단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외식, 간식, 관광 소비가 결합된 복합 소비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 박창훈 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신한카드는 박창훈 사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공공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 사장은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인증,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는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과 박래원 하이프라자 대표를 추천했다.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신한카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업계순익 80% OK·SBI 집중 저축은행 '양극화' 현상 뚜렷

작년 저축은행 20곳 순익 50배 ↑ OK 순익 1688억, SBI 1131억 달해 3위 신한과 2위 순익 격차 3배 차이

지난해 저축은행 상위 20곳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배 불어난 가운데 순이익의 80%가 OK(저축은행)와 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저축은행 사이에서도 순익 양극화가 뚜렷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상위 20곳의 누적 합산 당기순이익은 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연도(53억5000만원) 대비 50배나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상위 20개사 총 당기순이익의 80%를 차지했다. OK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688억원으로 20개사 전체 순이익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SBI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113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OK저축은행의 순익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2024년 OK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9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688억원을 기록, 1년 만에 순익을 약 4배 이상 끌어올렸다.

유가증권 투자가 성공하면서다. 지난해 OK저축은행의 유가증권 관련 수익은 2090억원으로 전년(408억원) 대비 1682억원 확대됐다. 지난 2020년 OK저축은행이 유가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이익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54억원, 2021년 429억원, 2022년 마이너스(-)240억원, 2023년 -130억원, 2024년



저축은행 순이익의 대부분이 상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295억원의 유가증권 투자 수익을 내은 바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 관련 투자 이익이 확대됐다"면서 "통상 배당 수익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유가증권 투자 한도 준수를 위해 매도를 진행해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쏠리면서 상위권 저축은행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상위 20개사 당기순이익 기준 순위를 살펴보면 2위인 SBI저축은행과 3위 신한저축은행 간 격차가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간 순이익 차이는 787억원이다.

상위 20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대폭 쪼그라든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2024년 401억원이었던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6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웰컴저축은행은 374억원에서 63억원으로, 애규온저축은행은 370억원에서 -5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국토부, 자율차 상용화 환경조성 나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 출범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앞서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이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

동차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 앞장

노동부·장애인공단 등 참여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공단·은행연합회가 참여했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고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 등 은행업권에 적합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향후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달에는 금투업계, 다음달에는 보험업계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안승진 기자 asi1231@

한화에어로, 투자·인수 등 외연확장... 통합방산 역량 극대화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 추진
KAI 지분 확대... 사업범위 확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행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잇따른 투자와 인수 추진을 통해 지상무기와 탄약, 항공·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해외 수주 대응력과 공급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 추진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 등을 통해 방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풍산은 5.56mm 소구경탄부터 155mm 곡사포탄까지 대부분의 탄약을 생산하는 국내 종합 탄약 기업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사업부 가치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5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 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등을 중심으로 지상무기 수출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탄약 생산 역량까지 확보하면 무기체계부터 탄약, 후속 군수지원까지 아우르는 일괄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무기 성능뿐 아니라 납기 대응 능력과 후속 군

수지원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한화가 탄약 사업을 품을 경우 지상무기와 탄약을 결합한 패키지 수출 역량이 강화되면서 해외 수주전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최근 KAI 지분을 추가 매입해 총 4.99%를 확보한 점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 지분을 정리한 이후 약 7년 만의 재투자다. 표면적으로는 우주

항공·방산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라는 설명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한화가 지상방산을 넘어 항공·우주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KAI와의 접점이 넓어질 경우 한화의 방산 포트폴리오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무기와 탄약에 더해 항공·우주 역량까지 연결되면 사업 구조 전반이 넓어질 수 있어서다.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등 기체 제작 역량을 보유한 KAI와 엔진, 전장, 지상무기 분야 경쟁력을 갖춘 한화 계열이 맞물릴 경우 사업 간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 여력도 외연 확대 전략의 기반으로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 4조원이 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8년까지 총 1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가운데 지상방산 인프라 투자 규모만 2조원대에 이른다. 생산기반 확대와 사업 확장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외연 확대 구상이 실제 재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은 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과 산업적 과잉효과를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와 패키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온 만큼, 시장 영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분야"라며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무기와 탄약, 항공·우주 역량이 연결되면 수출 제안범위와 대응 능력이 함께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방산 재편 논의도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포스코, 브릴스 70억 투자... 제조혁신 속도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 계획
제조현장 안전성·생산성 제고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포스코그룹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브릴스에 투자하며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I)에 속도를 낸다고 7일 밝혔다.

브릴스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11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홀딩스 전략펀드 50억원과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20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스마트팩토리를 넘어 사람·인공지능(AI)·로봇의 협업을 기반으로 지능형 자율제조 프로세스를 구현한 차세대 공장이다. 포스코그룹은 노동 강도가 높거나 사고 위험이 큰 수작업 공정에 맞춤형 로봇을 우선 적용해 제조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벤처펀드와 포스코기술투자를 통해 사족보행 로봇 기업 에이디로보틱스, 로봇핸드 전문기업 테슬로, 협동로봇 기업 뉴로메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페르소나AI 등 유망 로봇 기업에 총 190억원을 투자해 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우에 브릴스의 로봇 설계·제어 역량을 접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단순한 로봇 제작을 넘어 자동화 운영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 신형 코나 가격인하... 경제성·실용성 승부수

소형 SUV 시장 경쟁력 강화



현대차 2027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공략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2027 코나'를 선보인다.

국내 소형 SUV 판매량 1위 기아 셀토스와 한국GM 트렉스 크로스오버 등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나는 2023년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지 3년을 넘어서면서 판매 부진에 시달려왔다.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소형 SUV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연식변경 모델 '2027 코나' 가솔린 1.6터보 모델 트림은 2429만원으로 기존 가격(2478만원) 대비 49만원 인하했다. 2027 코나의 가솔린 2.0 모델 트림 가격도 2360만원으로 직전(2409만원) 대비 역시 49만원 저렴해

졌다. 코나의 기존 모델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던 인조가죽 시트와 인조가죽 내장을 옵션으로 빼면서 가격을 내린 것이다. 또 LED 실내등, ECM 룸미러, 2열 에어벤트 사양은 상위 트림 사양으로 조정했다. 코나 하이브리드도 모델 트림

가격을 59만원 낮췄다. 이에 따라 코나는 동급 소형 SUV 기아 셀토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는 "사양 등을 조정해 가격을 낮춰 경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형 SUV 고객층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BMW,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시장 판매 1위

1분기 2913대 판매... i5 절반 차지

만대 판매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BMW가 올 1분기 국내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등을 누르고 판매 1위를 기록했다.

BMW코리아는 1분기 총 2913대의 전동화 모델을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순수전기차 총 1732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총 1181대를 판매했으며, 순수전기차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1157대) 대비 49.7% 증가했다.

BMW코리아의 전기차 판매는 BMW i5가 이끌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828대가 판매됐다.

다만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BMW코리아가 1위는 아니다. 테슬라는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전기차 전문 브랜드라는 점에서 판매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Y와 모델 3를 중심으로 한 판매량이 워낙 큰 만큼 전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사실상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달에만 1만1130대를 판매하며, 전기차 월 1

한편 BMW 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다. BMW코리아는 2022년 말부터 전국 주요 거점에 공공 개방형 프리미엄 충전소 'BMW 차징 스테이션'을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총 303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약 1000대의 충전기를 추가해 총 400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전동화 모델 특화 AS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재 총 81곳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동화 모델의 정비와 소모품 교환 등이 가능하며, 고전압 배터리나 사고 수리 등 고난도 정비도 42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지원한다. 전기차 전문 인력도 업계 최다 수준인 480명을 보유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하는 전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전동화 라인업 구축은 물론,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다양한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 자율운항 시스템 국제 인증

DNV '하이нас 컨트롤' 형식 승인

양산형 자율운항 시스템이 다양한 선종에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이нас 컨트롤은 별도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 적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선박 자율 운항 자회사 아비커스가 최근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자율 운항 시스템 하이нас 컨트롤에 대한 형식 승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하이нас 컨트롤은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통합한 자율운항 솔루션이다. 주변 선박과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운항 상황을 판단해 충돌 회피가 가능하도록 선박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성운 기자

또 HD현대는 이번엔 마련된 검증 체계와 평가 기준이 자율운항 국제표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관련 기준 수립의 주요 참고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반덤핑 효과에 실적 회복 원가부담 커지고 중동리스크 상존

포스코홀딩스, 실적 반등 흐름
현대제철, 흑자전환 가시권 진입

열연·후판·철근값 오름세 지속
전방산업 회복에 출하 증가세
유가상승·공급차질 부담 여전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상승을 앞세워 1분기 실적 반등 흐름에 진입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와 전방산업 수요 회복이 맞물리며 평가가 오르는 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중동발 원가 부담과 공급 불안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각각 17조4528억원(+0.06%), 6042억원(+6.6%)으로 집계했다. 현대제철은 매출 5조8611억원(+5.35%), 영업이익 1228억원(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실적 개선 배경으로는 반덤핑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중국산 후판에 27.91~38.02%,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일본산 31.58~33.43%, 중국산 28.16~33.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저가 수입재 유입이 둔화되며 국내 철강재 유통가격이 상승했다. 전방산업 수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25만9600대로 전월(18만8500대)과 전년월(24만6600대)을 웃돌았고, 전월 대비 37.8%,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가격 상승 흐름은 2분기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열연 가격은 t당 90만원으로 전주 대비 3.4% 올랐



광양제철소 하이퍼 NO 공장 건설 현장 모습.

고, 철근은 82만5000원(+3.8%), 후판은 96만원(+2.1%)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며 에너지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원가 부담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글로벌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 기조와 국내 재고 감소, 중동발 공급 차질이 맞물리며 원가 상승분의 평가 전가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천연가스 기반 직접환원철(DRI)을 활용해 슬라브·빌릿 등 반제품을 생산해 중국과 동남아 등에 공급해 왔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이란이 연간 조강 3000만톤을 생산해 약 1000만톤을 수출해 왔지만, 이번 전쟁으로 수출이 최소 500만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란산 반제품에 의존해 온 중국·동남아 지역은 생산 차질과 원가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졌고, 국내 철강사들에는 일부 반사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철강사들은 가격 인상과 함께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전기강판 생산능력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0.15mm 초극박 'Hyper-NO'를 앞세워 전기자동차 소재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3세대 자동차강판 글로벌 판매 확대와 탄소저감 제품 양산체제 구축, 생산성 향상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란산 저가 반제품 공급이 위축될 경우 동남아와 중국의 생산 차질과 원가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철강은 글로벌 경기와 환율, 물류비 등에 민감한 만큼 거시 변수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웅장한데 섬세하다”... 영포티 맞춤형 SUV

YG의 CAR TALK **다독**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3열 갖춘 풀사이즈 SUV 공간성 강점
매킨토시 사운드·마사지 시트 적용
V6 자연흡기 엔진, 장거리 주행감
도심·고속도로 안전·편의사양 눈길

지난 30년간 전 세계 시장에서 약 70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은 명차라는 수직어를 달기에 충분한 모델이다. 특히 시승하는 동안 여행과 레저를 즐기는 영포티를 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차 특유의 다소 거친 엔진음과 자연흡기의 부드러운 파워와 럭셔리 앰프의 대명사 매킨토시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등 쿨하고 세련된 문화를 즐기는 그리고 자녀가 있는 40대 아빠에게 안성맞춤인 모델이다.

그랜드 체로키 L의 첫인상은 웅장함과 동시에 다부진 체격의 미식축구 선수의 느낌이 강하다. 실제 대형 SUV인 그랜드 체로키 L은 3열 좌석을 갖춘 풀사이즈 SUV로 뛰어난 공간성을 확보했다. 전장 5220mm, 휠베이스 3090mm로 2, 3열 모두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적재 공간도 3열을 사용해도 기본 487L를 제공하며 3열 시트를 접으면 1328L의 공간을 확보해 골프백 4개도 거뜬히 실을 수 있다.

실내 공간은 장인의 수작업 공정을 거친 가죽을 적용해 프리미엄 가치를 선사한다. 명품 가죽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친 프리미엄 팔레르모 가죽 시트를 전 좌석에 적용했다. 특히 1열의 ‘12-방향 파워 마사지 시트’는 단순히 두드리는 수준을 넘어 등받이와 시트 쿠션 내부에 탑재된 에어셀이 상하좌우 및 대각선 등 12개 방향으로 미세하게 움직여 장거리 주행 시 근육 피로를 풀어주며 전 좌석 탑승객 모두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파워트레인은 3.6L 펜타스타 V6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35.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미국 엔진 특유의 가속력은 물론 8단 자동변속기의 다단화로 정속성과 가속 반응성,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럭셔리 플래그십 차량인 만큼 안전 편의 사양도 빼놓을 수 없다. 자율주행 레벨 2 등급의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비롯해 나이트 비전 카메라, 360도 서라운드 뷰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장거리 주행에도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에서도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매킨토시가 설계한 사운드 시스템은 19개의 스피커를 통해 몰입감 넘치는 음향을 제공했다. 연비는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남도 광주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700km 구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한 결과 8.6km/L로 공인 복합연비(7.7km/L)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은 써밋 리저브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판매 가격은 1억 23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주행모습.

한화방산 3사, 중남미 통합 방산시장 공략

FIDAE서 육해공 통합 역량 선보여
철레 등 중남미 전력 교체 수요 대응
타이곤·SAR위성·잠수함 수출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FIDAE 2026’에서 지상과 해양, 우주 전력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 역량을 선보인다. 차륜형 장갑차와 자주포, 위성, 잠수함·호위함 등 각 사 핵심 제품을 앞세워 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육·해·공 전력 현대화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화 방산 3사는 7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FIDAE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FIDAE는 격년으로 열리는 중남미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로 이번 전시에는 35개국 440개사가 참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TIGON) 실물을 칠레에 처음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타이곤은 6x6 버전으로 각 바퀴를 독립적으로 구동·제어할 수 있어 기동성과 주행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총탄과 지뢰에 대한 방호 성능도 갖췄다.



7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FIDAE 2026’에 참가하는 한화 통합부스 전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타이곤은 원격사격통제장치(RCWS)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실전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4x4와 8x8 등 운용 환경에 맞춘 라인업도 갖추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칠레 국방부가 추진 중인 장갑차 현대화 사업에 맞춰 임무와 지형에 따라 최적화가 가능한 타이곤의 강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다연장 첨단 유도무기 천무, 차

세대 보병전투장갑차(K-NIFV), 차세대 대전차 유도무기 천검 등도 함께 전시한다.

한화시스템은 주·야간 및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5cm급 해상도로 관측이 가능한 소형 SAR 위성을 전시한다. 위성 데이터에 한화의 독자적인 AI 위성 영상 분석 솔루션을 결합해 전술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무인체계와 실시간 협업하는 지능형 해상 지휘 거점인 ‘스마트 배틀십’ 솔루션도 공개한다. 스텔스 설계와 AI 기반 지능형 전투체계, 콕핏(Cockpit)형 통합함교체계(IFS)를 갖춘 스마트 배틀십은 다영역 해상 작전환경에서 지휘 통제 기능을 통합했다. 표적 탐지부터 교전까지 AI를 적용한 최첨단 ‘잠수함 전투체계(CMS)’도 함께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수상함 중심의 해양 방산 역량을 선보인다. 3000톤급 장보고-III(KSS-III Batch-II), 2000톤급 잠수함 ‘오션 2000(OCEAN 2000)’, 4000톤급 및 5600톤급 호위함 등을 전시해 중남미 국가들의 해양 안보 수요에 대응한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

핵심 인력 활용해 현장 연속성 확보
업계 첫 재고용 위원회로 운영 체계화

LS일렉트릭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S일렉트릭은 2010년부터 매년 정년퇴직자의 약 3분의 1을 재고용해 왔다고 7일 밝혔다. 핵심 기술과 사업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과 생산, 영업 현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인사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정년 후 재고용 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의 체계성도 높였다. LS일렉트릭 노사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위임하고 정년 후 재고용 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안정성과 회사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재고용 제도는 사업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축적된 직무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인재들이 영업, 연구개발, 생산 현장에 다시 투입되면서 제품 완성도와 품질 신뢰도,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있어서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여 납기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고용 인력은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도 역할을 넓히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배전반 제조 자회사 MCM엔지니어링II와 베트남 박닌 공장 등 해외 생산 거점에 영업, 연구개발, 생산 분야 재고용 인력을 전략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에도 힘을 쓰고 있다. 매년 채용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지역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현장실습 인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보안사고 후폭풍... SKT·KT '매출 급감', LG U+ '실적 개선'

SKT, 해킹사태에 점유율 40% 붕괴
보상 비용·역기지 효과 맞물려

KT, 소액결제 피해에 신뢰도 타격
위약금 면제조치로 31만명 이탈

LG U+, 유일하게 실적개선 전망
인건비 부담 ↓·이동전화 매출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지난해 있었던 보안 사고라는 대형 악재의 그림자 속에서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이 둔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LG유플러스는 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실적 회복'이 선명해 지는 양상이다.

다만, 지난해 통신 3사가 1분기 호실적을 올렸던 만큼 이에 따른 역기지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자료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K텔레콤, KT, LG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지난해 있었던 보안 사고라는 대형 악재의 그림자 속에서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든 1조 3488억원으로 추산된다. 합산매출 역시 15조 779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기업별로 보면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 4015억원, 영업이익 506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0.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월 약 2696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뼈아팠다.

이 사고로 인해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며 무선 점유율 40% 선이 무너졌다. 여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이용자 보상안 마련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지난해 비용 효율화로 거뒀던 호실적에 대한 역기지 효과까지 맞물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엔 역기지 효과로 SK텔레콤의 연결 영업이익

익은 전년비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동전화매출액이 증가세로 반전하고는 있지만, 2025년 2분기 영업정지 여파로 전년동기비로는 여전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의 상황도 좋지 않다. KT의 1분기 예상 매출은 6조 8156억원, 영업이익은 56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나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 불법 소형기지국(뎀토셀)을 통한 정보 유출 사고가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지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연초에 시행한 '위약금 면제 조치'로 약 31만 명의 고객이 다른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빠져나갔다.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케팅 보조금 확대 역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됐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실적 개선을 이뤄낼 전망이다. 1분기 매출은 3조 8604억원, 영업이익은 2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10.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고, 이동전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점이 주

효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전화번호 기반' IMSI 생성 체계 논란과 유심 전면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는 향후 실적의 변수로 남아 있다.

김연구원은 "서비스매출액 증가와 인건비 감소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및 연간 높이는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SKT 영업정지에 따른 상대적 수혜, 비용 감축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안 사고로 홍역을 치른 통신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했다. KT 역시 최소 1조 원을 들여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보안 혁신 TF'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을 투자해 모든 인프라의 위험을 제거하는 '제로트러스트'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멈춰있던 OTT 통합... KT 변수에 '꿈틀'

티빙·웨이브 합병절차 2년째 중단
KT, 미디어 사업 전반 전략 재정비
웨이브, CJ ENM 출신 인사도 '주목'

KT 변수 변화 가능성에 따라 멈춰 있던 티빙과 웨이브 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임 조짐을 보인다.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시장 재편의 핵심으로 꼽혀온 티빙과 웨이브 통합 논의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년 넘게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주요 주주인 KT의 전략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티빙과 웨이브 통합은 2023년 12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됐지만,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후 협상은 이어지지 못했다.



핵심 변수는 KT다. KT는 티빙 지분 약 13퍼센트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통합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동안 KT는 합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과 IPTV 사업과의 관계, 기존 OTT 사업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시너지'와 티빙 통합 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역시 변수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변화 가능성도 감지된

다. KT가 미디어 사업 전반을 재정비하면서 OTT 투자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협상 여지가 과거보다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웨이브 내부 변화도 변수다. 콘텐츠웨이브는 최근 CJ ENM 출신 인사를 대표로 선임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통합 논의와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시각과 단순한 경영 효율화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OTT 시장 환경 역시 통합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러 있다. 두 플랫폼을 합쳐도 글로벌 사업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론칭

'스케이 포 굿' 참여기업 모집

SK텔레콤은 ESG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스케이 포 굿(SKTC for Good)'을 론칭하고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KTC'는 SK텔레콤과 기술(Tech)을 결합한 이름으로,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포용·돌봄, 기후 재난 대응,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멘토링과 교

육, 협업 모델 발굴, 투자 유치 컨설팅, IR 기회, 전시 참가, 사무공간 등 지원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ESG 중심 '스케이 포 굿'과 AI 분야 '스케이 워드 AI'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스케이 워드 AI'는 7월 출범 예정으로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 15개사를 추가 선발한다.

회사는 2021년부터 ESG 스타트업 78개사를 지원해왔으며, 향후 스타트업 육성과 협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EBS 지식영상 콘텐츠 구축

네이버는 EBS와 지식 영상 콘텐츠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성남 네이버 1784사옥에서 협약식을 열고, 건강과 금융·경제 등 실생활 정보부터 초중고 교과 기반 학습 콘텐츠까지 폭넓은 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식 영상 아카이브를 지속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네이버 검색과 유튜브, 지식백과 등 주요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가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최빛나 기자

삼성SDS, 우리은행 'AI 에이전트 banking' 수주

우리은행 5대 영역, 28개 업무에 적용

삼성SDS는 우리은행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banking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175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금융권에서 대규모 AI 에이전트를 본격 적용하는 사례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객 응대와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관계관리(CRM)·기업여신, 자산관리, 내부통제, 고객상담, 업무자동화 등 5대 영역 29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 프로

세스도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설계해 처리 속도를 약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SDS는 자체 플랫폼 '패브릭스'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언어모델 적용 환경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은 5월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약 90개 에이전트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중장기 IT 인프라 최적화' 사업도 연이어 수주했다. 기존 유닉스 기반 시스템을 리눅스로 전환해 호환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서현 기자

LG U+의 B2B AX플랫폼 활용

LG유플러스는 IBK시스템과 금융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기술과 IBK시스템의 금융 도메인 역량을 결합해 여신 심사,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금융 업무 효율성과 보안 수준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에는 LG유플러스의 B2B AX 플랫폼이 활용된다. 해당 플랫폼은 워크에이전트 기반 업무 혁신 체계로, LG AI 연구원의 생성형 AI '엑사원'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다. 에이전트 코어, 지식관리시스템, 대규모 언어 모델 운영(LLM Ops) 등 주요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양사는 이 플랫폼에 IBK시스템의 금



LG유플러스가 금융 분야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IBK시스템과 손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IBK시스템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권용현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부부장(오른쪽)과 현권익 IBK시스템 대표이사(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융 업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금융권에 적합한 AI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 공동 기획,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상품화 및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확대해 금융 업무 전반의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실적 최고인데 주가는 흔들... 코스피 반등 열쇠는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매도세' 지속
삼전·하이닉스 영업이익만 80조
외인 복귀, 중동 리스크 해소 관건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호조에도 코스피에서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역대급 매도세 중 하나입니다.”
7일 A자산운용사 주식 담당자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파는 걸 보면 추가 조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운용사는 최근 중동 전쟁이 확산하자 주식·펀드 운용에 대한 포지션을 ‘헤지(위험 방어)’로 바꿨다.

6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를 널뛰기 한 건 외국인 투자자다. 외국인은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주식을 팔아치웠다. 하루 1조원 넘게 판 적도 13번이나 됐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35조 6000만원에 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복귀 여부는 중동 지역 리스크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 ‘셀 반도체’ 외국인

중동 전쟁 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반도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8조 7097억원을 순매도

했고, SK하이닉스도 7조 7680억원어치 팔았다. 월순자산운용 펀드매니저 매튜 하우스트는 블룸버그에 “전쟁과 메모리(반도체)라는 두 가지 역풍이 동시에 불고 있어 현재 한국 주식에는 손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드 캐피탈 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 제럴드 갠도 “전쟁이 앞으로 한두 달 더 장기화한다면,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국 주식 투자를 다시 검토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증권가에서는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성격이 짙다는데 무게를 싣는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애초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집중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포트폴리오 싹쓸이 방지를 위한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반도체 주가가 계속 급등한다면, 외국인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도 외국인 편이 아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504.2원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 외국인 이탈’의 악순환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매도 압력을 키운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매도를 유도한다. 환율 상승세가 꺾이

지 않는 한 외국인 수급 반전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가 급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점도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순한 원유 시장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존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내렸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0.9%포인트 올랐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물가상승률이 3%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지면서 투자할 유인이 적어졌다는 평가다.

◆ 중동 리스크 해소에 달려

외국인은 국내 증시의 주요 수급 주체다. 추가 반등 여부가 외국인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통상 한국 주가지수와 외국인 순매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단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이 한국증시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기업 실적은 외국인 투자 유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컨센서스 추정치를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196곳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42조 2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58조 7315억원 대비 1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상승분의 대부분은 반도체 투동에 쏠린다.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57조 2000억원, 매출은 42% 불어난 133조원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2조원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만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2.7%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려면 중동 전쟁이 진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노무라 “중동 전쟁이 2~6개월간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130달러 수준에 형성될 경우 한국의 기업 마진 및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보안이 곧 신뢰... 금감원, 감독 패러다임 전환

국회·금융협회·보안업계 간담회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바꾸고
내부통제 부실, 무관용 원칙 적용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IT·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보안이 곧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학계 및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보안 수준과 감독 방식만으로는 IT·정보보안 사고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 속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 은행·금투·보험·여전업권 협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강병훈 KAIST 교수, 민기식 SK실트스 대표, 팔로알토네트웍스 관계자 등 정책·산업 전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권 사고를 보면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안 취약점 방지, 용량 미확충 등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 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감독 방식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조치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침해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

응 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국회와 금융권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금융협회는 업권 전반에 보안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IT·보안 인력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도 “해킹 등 IT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삼전·하이닉스 담은 채권 ETF

KB자산운용과 동일 구조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KB자산운용에 이어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면서 우량 채권으로 안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같은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를 7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자산의 절반을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최대 25%씩 비중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50%는 국고채와 같은 국내 우량 채권으로 채워 자산배분 효과를 극대화했다.

최근 미·이란 전쟁 위기 등 대외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 ETF는 주



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과 채권의 이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이익은 쟁기, 하락장에서는 50%의 채권 비중이 완충 작용을 하는 전략이다.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투자 흐름 한눈에 보세요”

분산 자산정보 통합·UX 재설계
금융투자 최적화된 디자인 시스템

미래에셋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의 핵심서비스인 ‘MY자산’을 전면 개편하며 ‘M-STOCK 3.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분산된 자산 정

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을 재설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현황, 세부잔고, 투자수익, 투자활동 등 정보가 각각 분리돼 있어 투자자가 여러 화면을 오가며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MY자산’ 서비스에 금융투자에 최적화된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면 구성과 정보체



를 전면 재정비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RIA 잔고 1000억 돌파

엔비디아·테슬라 시·빅테크 중심 입고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증시 복귀 계좌(RIA)가 출시 2주 만에 잔고 1000억원, 계좌 수 1만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첫 선을 보인 RIA 계좌는 출시 직후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빠르게 안착했다.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고객들이 RIA 계좌로 가장 많이 입

고한 종목은 엔비디아(200억원)였으며, 테슬라(80억원), 애플·알파벳(각 50억원)이 뒤를 이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하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한전,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체크리스트 개편·LTE무전기 도입

'안전 메아리' 제도 의무화
협력업체 상호 확인체계 구축
감전·추락 위험항목 집중 정비
안전조치 이행·기록 관리 강화
서류 중심서 현장형 체계 전환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 메아리는 공사 현장에서 협력 회사의 작업 책임자와 작업자가 핵심 안전수칙을 서로 구두로 반복해 확인하는 방식의 안전 의사소통 체계를 말한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 환경이다. 그간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족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한전은 기존 서류 중심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 메아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안전 메아리' 시행 의무화, ▲안전 중심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전면 재정립, ▲'스마트 안전기기' 단계적 도입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전은 전력설비 공사의 상당 부분이 협력회사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해, 협력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조치사항을 상호 확인하도록 제도화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감전, 집진, 안전고리 체결 등 핵심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도 전면 재정립한다.

기존 체크리스트를 안전 법령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감전·떨어짐 등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점검 항목 위주로 재구성했다.

특히, 주요 작업 절차마다 작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조치사항을 명문화해 작업자소통이 안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회사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안전기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무전기와 사용 방식이 유사하면서도 통신 거리와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LTE 무전기'를 한전이 구매해 협력회사에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협력회사는 장비를 활용해 안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기록·관리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향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효과를 분석하고 확산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핵심 안전수칙이 작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부발전, 직원 혁신으로 미래사업 발굴

'더블유피 노바' 본격 가동
해외 선진사례 연구·탐방 6팀 선발

한국서부발전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에 도입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서부발전은 7일 직원 주도형 혁신 프로그램인 '더블유피 노바(WP NOV A·New Opportunity & Vision Acceleration) 셉트 디자인 글로벌 챌린지'에 참여할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블유피 노바는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직원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주제를 선정하고,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총 27개 팀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

을 보였다. 서부발전은 활동 계획의 적정성과 업무 적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더블유피솔라리본', '서부가그린대로', '더블유피 카본헌터스', '더블유피 밸류업', '클린앤클리어', '스카이 라이트' 등 6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최종 심사에는 강영재 엔솔파트너스(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윤상연 미국전력연구소(EPRI) 한국법인 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선발된 팀들은 앞으로 무탄소 전원 도입, 탄소감축 기술, 해상풍력 사업 개발 등 해외 선진 기업과 연구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직에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신기술·신사업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프로그램 성과를 전사에 공유하고 우수과제는 연구 과제로 확대해 성과 창출을 이끌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국민 체감 행정개선 나선다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 선정·추진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최근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처리 지연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 등 소극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이다.

우선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일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업무상질병 판정서 약 19만 건을 추가로 공개해 산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곧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K-딸기 경쟁력 강화
해외판로 확대방안 논의
생산자대표조직 정기총회

농협이 '2026년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정기총회'를 열어 K-딸기의 해외 진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기범 협의회장 등 전국 딸기주산지 농협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은 전국 71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해 국산딸기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다.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결산 ▲딸기농가 대상 보급형스마트팜 사업 참여 확산 ▲'2027 농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참여 및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7농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최초 딸기산업 특화 전시회다. 내년 2~3월 중 예정돼 있다.

강호동 농협회장은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K-딸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폴리텍대학, 하반기 교수 초빙 AI 전환 맞춤형 인재 키운다

전국 19개 분야 하반기 임용 진행
전기·반도체 등 미래산업 수요 반영
현장 실무 3년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

한국폴리텍대학이 미래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국 캠퍼스 총 82명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발맞춘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계열별 채용 인원은 전기(15명), 반도체(12명), 산업설비(9명), 자동차(8명), 기계(5명) 등 총 19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자다.

특히 대학 측은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그동안 지원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실무와 연구 경력을 중

합 평가해 '현장 밀착형' 교수진을 구축해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교원 30명 역시 삼성전자파운드리 수석연구원 출신인 신경식 교수(반도체공정), 현대제철 및 포스코실리콘솔루션 거친 박진기 교수(제출시스템), 기술사 3관왕 우명선 교수(AI전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이철수 이사장은 "2026년은 직업교육 대전환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의 해'라며 "인공지능 산업 전환속에서 국민이 기술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실무 전문가들을 강단에 모시겠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4월 1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임용은 오는 8월 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kopo.ac.kr)과 채용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비료·농업용 필름 수급 점검 돌입

농식품부, 중동사태 파급 합동점검

정부가 비료·농업용 필름 등의 수급 점검에 나선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용 필름에 대해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합동점검반을 파견해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으로 구성되며 총 10개 팀·240여 명을 투입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폴리에틸렌)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한다. 또 제품가격 상승을 기대해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중동전쟁 전후의 원자재 가격 변동을 집계한다.



지난 6일 경기 고양의 농협 자재센터에 요소 사용 비료 제품이 보관돼 있다. /뉴시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700여 개소를 선정해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한다. 아울러 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해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시어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해남군, 출산·양육 지원정책 강화... 아동 1인당 1.1억

출산지원사업 통합·일원화
해남아이 키움수당 등 신설
“체감형 정책 확대해 나갈 것”



해남군청 전경. (원형사진)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군이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군은 출산지원사업을 통합·일원화해 해남아이 키움수당 신설하는 등 2026년생 기준 아동 1인당 18세까지 총 1억 1482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초음파 검진비, 임신 영양지원, 기저귀 구입비 등 10종의 사업을 통합해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168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생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12개월까지 0세 아동에게는 신생아

양육비가 총 200만원 지원된다. 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가정보육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2만원은 변동없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1세아의 경우 월 50만원, 아동수당은 월 12만원씩 8세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출생기본소득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총 지원 규모는 4320만원이다. 출생기본

소득은 지난 2025년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해남군 자체 시책으로 초중고 입학 축하금이 각 30만원씩 지급되며, 가정보육시 2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20만원씩, 10세~15세 아동에는 초·중·고 등 월 10만원, 중등 월 5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된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이 일원화되면서

해남군의 출산·양육 지원은 출생부터 18세까지 신생아 양육비, 해남아이 키움수당, 출생기본소득,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9종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총 지원금액은 1인당 1억 1482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비 지원과 다자녀 양육 장려금 60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국·군비 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와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해남아이 가치기움 프로젝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등을 통해 원스톱 안심 출산환경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출생 축하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산청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야 한다. 재산은 청년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이뤄지며 총 지원액은 480만원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여행가는 달’ 프로모션

울진군은 ‘2026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코레일과 협력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코레일을 통해 울진 여행 상품을 예약한 뒤 성류굴, 국립울진해안과학관, 왕피천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에서 QR 인증을 하면 열차 운임 전액에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다.

또 관광객이 이용료의 60%를 지원해 4시간 기준 약 3만 2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 해설과 맛집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숙박세일페스타’를 통해 최대 7만원까지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울진(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 ‘2026 KEL’ 전 종목 유치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

우수한 인프라·정책 지원 결실
“글로벌 이스포츠 중심지 발전”

경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전 종목 유치를 성공했다. 3개 종목을 동시에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

KEL은 이스포츠 대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연구팀 육성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2025년 도입된 전국 단위 공공리그다. 경남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참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 전 종목 유치권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2024년 5월 개소한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의 우수한 인프라와 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지난해 9월 ‘이터널 리턴 슈퍼워크’ 개최 당시 약 16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개관 이

후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당시 대회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일정은 4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5월 FC 모바일 개막전, 10월 이터널 리턴 슈퍼워크 순차 진행된다.

경남도는 리그 유치와 함께 지역 연구팀 지원도 병행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G.N. Revenant NOVA’, 이터널 리턴 ‘경남 스파클 이스포츠’, FC 모바일 ‘경남 웨이브(WAVE)’ 등 3개 연구팀에 훈련비·출전비·피복 및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관광장은 “전국 유일 3종목 동시 유치는 경남이 이스포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며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와 성공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스포츠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본격화

마스터플랜 확정... 5년간 503억 투입

부산시가 앞으로 5년간 503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전략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분석·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를 포괄하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 활용 기반 강화와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4대 전략 10개 실행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데이터 개방 서비스 효율화 ▲데이터 관리 체계화 ▲민간 주도 데이터 산업 진흥 ▲데이터 핵심 인재 양성이 4대 전략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확대, 행정 전반에 흠어진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데이터기업 육성 및 핵심 산업별 생태계 조성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시민 데이터 문해력 향상 등을 추진한다.

전사적 메타데이터 관리와 컨트롤 타워 기능도 구축해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데이터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민간 전반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도출된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을숙도 생태공원 관광상품 선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손잡고 을숙도 생태공원을 활용한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을 선보였다.

이번 상품은 생태·웰니스·교육 가치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활동 반경을 서부산권으로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지난 3월 부산 주요 여행업계와 현장 점검을 거쳐 상품성을 검증하고, 국가별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별 맞춤형 테마 상품을 구성했다.

상품은 크게 3개 시장으로 나뉜다. 구미주 관광객에게는 ‘ONDO 에코레

조너스(Eco Resonance)’를 제공한다. 에코센터 전문 해설·야생동물 치유센터 체험·선셋 에코테라피 등 프로그램과 프라이빗 차량 서비스가 포함된다.

대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봄 시즌 특화 ‘벚꽃 피크닉’ 상품을 운영한다.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도시락과 버스킹을 즐기는 감성 콘셉트로, 올해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일본 관광객에게는 봄·가을 철새 관찰과 낙조 감상 중심의 ‘소규모 힐링·트레킹 투어’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자동차분야 2.8억, 에너지분야 14억

경북도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에너지 절약과 차량 운행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분야는 올해 경북 전역에서 총 6840대를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 조기 마감된 안동과 예천 등 일부 시군은 물량을 조정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도는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적인 홍보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된다.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동일 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올해 사업비는 에너지 분야 14억원, 자동차 분야 2억 7800만원 규모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모집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는 비사업용 차량만 해당되며,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교육청

경북교육기획단 본격 활동

경북교육청이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에서 ‘2026 경북교육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첫 협의회를 열어 2027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학교 현장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갖춘 유·초·중·특수 교감과 일반직 사무관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과제 발굴, 현장 의견 수렴, 정책 분석 등 교육 정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포장재 공급망 불안... '탈 플라스틱 전략' 현실적 대안 부상

**식품·유통업계, 포장재 확보 난항
전쟁 장기화시 판매구조 전반 충격
“제품 수급·가격 영향 줄 수 있어”**

중동 전쟁 여파로 알루미늄과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품·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음료와 맥주 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플라스틱 포장재의 출발점인 나프타 수급에도 경고등이 켜지면서 비닐·페트·완충재·의류소모품까지 연쇄 충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포장재 재고가 1~2개월 치에 불과해 종이·골판지로 대체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쟁 장기화 시 생산 차질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런던금속거래소에 따르면, 현물로 거래되는 알루미늄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말과 비교해 약 15%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알루미늄을 전량 수입해 캔을 제작하는 음료·주류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분기 단위 계약 구조상



해양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PHA. /CJ제일제당



동원F&B 친환경 포장용기. /동원F&B

다음 계약 갱신 시점에 오른 시세와 환율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은 통조림을 제외한 술·탄산 음료 대부분에 사용된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데다 재활용이 용이해 두루 쓰인다.

문제는 알루미늄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라면 용기, 페트병, 비닐, 택배 완충재까지 포장재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기업들이 확보한 포장재 재고는 1~2개월 치에 불과하다.

이커머스업계 역시 비닐 포장재 재고가 빠듯해지면서 종이봉투와 골판지 박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실제 주문을 늘리고 있다. 크라프트지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 제지 회사는 구매 문의가 평소보다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이쇼핑백 관련 문의도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완충재도 종이 소재

로 바뀌어야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식품업체나 화장품·생활용품 제조업체 등도 종이 포장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종이 포장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종이 가격도 오르고 있어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탈 플라스틱’ 전략이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용기와 포장재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토양과 해양에서 생분해되는 바이오 소재 PHA를 앞세워 포장재·위생용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 컴파운드 업체 콘스펙에 PHA를 공급해 생분해 커피리터 생산에 나섰고, PHA 빨대의 전국 매장 확대와 생분해 위생행주 상용화 등 적용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최근 나프타 등 석유계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PHA가 플라

스틱 대체 소재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패키징 기업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동원F&B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인 액상 제품 용기를 개발해 참치액과 식용유 등에 우선 적용했다. 12각 돌출 구조와 다이아몬드 서포팅, 고리형 프리폼 구조를 적용해 누유를 방지하면서 워셔조 방지 기능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용기 적용으로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약 14t,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40t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롯데칠성음료는 재생 플라스틱 100%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분쟁이 국내 식품·유통·의료 공급망을 동시에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종이 포장재까지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어 생산 안정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포장재 리스크가 제품 수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뚜레쥬르, 몽골·인니 등 글로벌 성과 ‘뚜렷’

**CJ푸드빌 10주 주요 진출국 판매 호조
현지 협업 ‘마스터 프랜차이즈’ 주효**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진출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은 뚜레쥬르와 현지 기업의 우수한 역량이 강력하게 결합된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베이커리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몽골에서 10년 동안 케이크 누적 판매량 170만개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몽골 인구 2명 중 1명이 뚜레쥬르 케이크를 구입한 경험에 있는 수준이다.

뚜레쥬르는 2016년 5월 몽골 현지 기업인 ‘아티산 LLC(2016년 당시 사명 몽 베이커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협약을 맺으며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 최초로 몽골에 진출했다. 2월 말 기준 2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1분기에는 일부



뚜레쥬르 몽골 이마트 텃점점 전경 /CJ푸드빌

점포를 국내 뚜레쥬르 브랜드 진화에 맞춰 리뉴얼 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몽골 시장에서의 성공 요인으로 K베이커리를 넘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이 적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에서 우수한 파트너사를 발굴하는 시장조사력과 분석력 ▲본사에서 정교하게 설계한 상품 전략과 매장 운영 방침 ▲이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으

로 역량을 이전시키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즈사와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뚜레쥬르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래 수도권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핵심 상권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베이커리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현지 MF 기업인 ‘소라(Sora)’와의 협업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까지 매장을 확대 출점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아시아 시장에서 우수한 마스터 프랜차이즈사와 함께 협업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베이커리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더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 전 사업장 화재대응 역량 강화

아라미드 소재 화재안전 보관함 도입

신세계백화점이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한 화재안전 보관함을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 최근 증가하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조배터리 화재안전 보관함은 소방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단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아라미드는 고온에서도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내열·난연 소재로 화재 환경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보관함은 배터리 열폭주 발생 시 1000℃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갖춰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조배터리 사용량이 많은 식당가, 라운지 등 영업 공간에는 화재안전 보관함이 우선 설치되며, 사용량이 적은 브랜

드 매장에는 동일한 아라미드 소재로 제작된 화재 차단 봉투가 지급된다. 이 화재 차단 봉투 역시 800℃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춰 초기 화재 대응과 확산 방지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보관함과 화재 차단 봉투 모두 외부 온도 센서를 탑재해 배터리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시험과 안전성 검증 등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해당 설비 도입 비용은 전액 신세계백화점이 부담하며, 전국 13개 사업장에 3월 말부터 도입하여 5월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한 안전 장치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오아시스마켓, 쇼핑 전 과정 AI 접목

‘테크 기반 커머스 기업’ 전환 본격화

오아시스마켓이 고객 서비스(CS)를 비롯한 쇼핑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테크 기반 커머스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AI 무인 계산 시스템 ‘루트(Route) 100’을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하며 유통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온 것에 이어, 자체 개발한 AI 비서 ‘메이(MAY)’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AI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마켓은 AI 비서 ‘메이’를 선보이고 고객 만족 시스템에 AI를 도입한 차세대 고객서비스 ‘AICS(AI Customer Service)’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메이’는 오아시스마켓의 최대 강점인 ‘셀프 환불’ 서비스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 고객이 직접 주문 내역을 찾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계란이 깨져서 왔어”, “우유가 상한 것 같아” 등 평소처럼 대화하듯 말하기만 하면 된다. 고객의 음성을 인식한 ‘메이’가 최근 3월 이내에 주

문한 상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파손, 신선도 저하 등을 선제적으로 묻고 처리한다. 배송 문제에서도 빛을 발한다. “상품 누락” 혹은 상품명을 말하면 ‘메이’가 먼저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상담원 연결을 위한 대기 시간 없이 즉각적인 소통과 해결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AI 비서 ‘메이’의 도입을 시작으로 단순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넘어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기술의 혁신을 통해 고객의 시간을 아끼고 만족을 채우는 ‘테크 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카톡에서 ‘더현대 하이’ 이용하세요”

현대백 프리미엄 e커머스 파트너 합류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큐레이션몰 ‘더현대 하이(Hi)’가 카카오의 ChatGP T for Kakao 안으로 들어간다. 일상 매신저 환경에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추천해 ‘일상속프리미엄 e커머스’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은 카카오톡 채팅탭 상단에서 이용 가능한 ‘카카오툴즈(Kakao Tools)’의 프리미엄 e커머스 파트너로 더현대 하이 합류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AI가 이용자 대화 맥락을

분석해 외부 서비스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설정에서 더현대 하이 톨을 추가하면, 패션·뷰티·선물 추천부터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와 식당가 정보까지 AI 기반 맞춤형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추천 내용을 누르면 더현대 하이 앱으로 연결돼 상품 확인과 구매, 예약까지 이어진다.

현대백화점은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 안에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결합한 옴니쇼핑 경험을 제공해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삼천당제약 “‘먹는 위고비’ 美 FDA 사전미팅 공식 승인”

개발 중인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개발 경로 공식적으로 인정 BE 시험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 S-PASS 등 시장 의구심 해소 나서

삼천당제약이 위고비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ANDA)의 사전 절차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의 PRE-ANDA 미팅이 공식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먹는 비만치료제(위고비)가 제네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천당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FDA 규정상 PRE-ANDA 프로그램은 제네릭(ANDA) 가능 품목에 한해 운영되기 때문에, 미팅 성사 자체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 개발 경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FDA의 PRE-ANDA 미팅은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개발 전략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ANDA 경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단계에서 거절된다. 이에 따라 이번 미팅 승인은 삼천당제약의 해당 제품이 제네릭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삼천당제약은 현재 FDA와의 논의는 단순 개발 계획이 아닌, 이미 확보한 생물학적 동등성(BE) 시험 데이터를 기반

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데이터를 FDA에 제출했으며, 시험 결과 및 프로토타입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천당제약은 FDA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가이드라인에 따른 ‘SNA C-Free’ 생동시험 전략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 ANDA 경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PRE-ANDA 미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FDA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 설계 및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제네릭 허가 절차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이번 PRE-ANDA 미팅 승인은 개발 경로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향후 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천당제약은 현재 주사제를 경구제로 바꾸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S-PASS’를 통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와 경구용 인슐린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위고비 개발자 노보 노디스크가 사용하는 흡수 촉진제 ‘SNAC’ 없이 SNAC-Free 방식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형 특허를 건드리

지 않고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S-PASS의 실체와 제네릭 허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급락했다.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FDA에 제출된 공식 논의 자료를 보면 해당 서류엔 S-PASS 특허 번호와 함께 제네릭, SNA C-Free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먹는 세마글루타이드는 제네릭으로 인정받아 임상시험 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허에 대한 PCT도 이미 출원했고 FDA에 보낸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삼천당제약 주가는 올해 들어 400%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S-PASS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 3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트룩시마’, 美 처방 점유율 1위

美 진출 6년 3개월여 만의 성과 지난해 3000억 이상 매출 기록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사진)가 국산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처방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7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아이큐비아(IQVIA) 기준, 트룩시마는 지난 2월 미국에서 35.8%(처방량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11월 미국에 진출한 이후 약 6년 3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다.

트룩시마의 처방 성과는 실제 매출로도 확인된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만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가 넘는 성장세를 이룩해 셀트리온의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성과는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셀트리온 사업에 미치는 영



향이 해소된 가운데, 사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셀트리온 미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를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국에서 신약으로 판매 중인 ‘집펜트라(렘시마SC의 미국명)’ 역시 브랜치버그(Brancheburg)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관세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셀트리온의 대표 자기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렉트라’ (렘시마의 미국 제품

명)도 미국에서 30.5%의 점유율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가장 높은 처방량을 기록했다. 2016년 11월 출시 이후 올해로 미국 판매 10주년을 맞이한 인플렉트라라는 매년 30%가 넘는 안정적 점유율을 지속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펜트라와 올해 1월 처방량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두 제품 간 처방 시너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롯한 경쟁사 제품들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처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제품 인지도와 선호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신·구 제품 모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지속하고 있어, 올해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 실적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유기농으로 신뢰 높은 ‘옥수수수염차”

광동제약 ‘옥수수염차 유기농’ 선배 칼로리·당류 제로... 무료경험 행사

광동제약은 검증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차음료 ‘광동 옥수수수염차 유기농’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광동 옥수수수염차 유기농은 스테디셀러 광동 옥수수수염차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유기농농작물만 취급하는 재배단지에서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키워낸 유기농 옥수수수염만을 엄선해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에 부여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식품’ 인증을 획득해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옥수수수염차 본연의 깊은 맛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온·고압에서 재료를 볶아내는 ‘미디엄 다크 로스팅’으로 깊고 구수한 풍미는 극대화하면서 끝맛은 깔끔하게 잡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칼로리와 당류를 모두 ‘0(제로)’로 설계했다. 천연적으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물 대신 마실 데일리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도 공복이나 취침 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광동제약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공식몰 광동상회와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배송비만 부담하면 제품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포스터 10건 발표

美 신경과학회 연례학술대회서 진행

SK바이오팜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18~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6 미국신경과학회(AAN) 연례학술대회에서 다수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사진)의 임상 성과와 실사용증거(RWE), 약동학 및 장기 유효성 데이터를 공개하는 한편, 뇌전증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실제 치료 경험 및 소통의 장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뇌전증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격차를 심층 탐구한 희망, 망설임, 그리고 불편한 진실(Hope, Hesitation, and Hard Truths) 설문조사는 뇌전증 환자와 신경과 및 뇌전증 전문의, 전문 간호 인력 등 환자 관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겪는 경험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관점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진료 과정 속의 장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환자 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통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니타 미스라(Sunita Misra) SK라이프사이언스 최고의료책임자는 “설문 조사는 뇌전증 환자와 신경과 및 뇌전증 전문의, 전문 간호 인력 등 환자 관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겪는 경험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관점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진료 과정 속의 장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환자 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통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이번 학회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임상 성과, 실사용증거(RWE), 약동학적 특성 등을 다룬 총 10건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웰빙, 日에 ‘지셀르 리본느’ 공급

日 ‘니후지’와 협력 본격화

GC녹십자웰빙은 일본 ‘니후지’와 인체조직 기반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셀르 리본느는 세포외기질(ECM) 성분을 바탕으로 피부의 건강한 재탄생을 돕는 제품이다. 인체 유래 소재인 무세포동종조직피를 활용하며, 세포외기질(ECM) 구조 자체를 직접 전달해 조직 재생성 기반을 제공한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 가공 공정으로 생체 적합성을 높였다.

GC녹십자웰빙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일본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아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내 유통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마케팅도 적극 펼친다. 오는 5월부터는 일본 현지 의료진을 대상



(왼쪽부터)케이타 고도 니후지 대표와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제품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GC녹십자웰빙은 인체 태반을 원료로 만든 라이네를 시장에 성공시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무세포동종조직피 지셀르 리본느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극 알리고 아시아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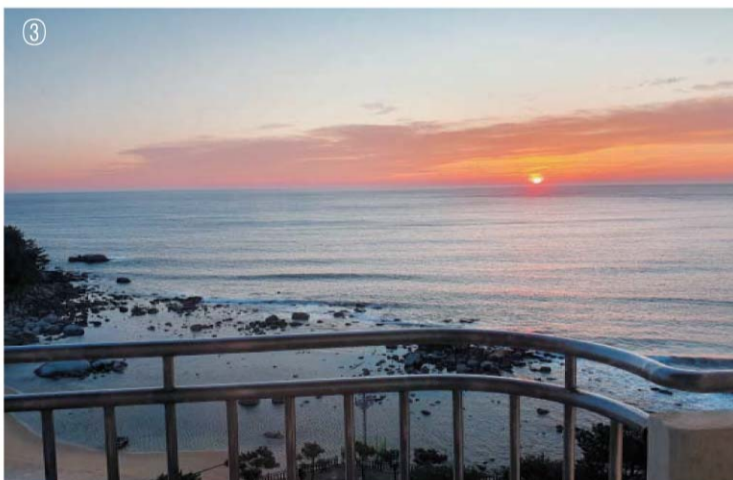
고성 오션리조트 특별 회원 모집

스위트형 796만원 특별 할인 모집

리모델링 완료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실제 이미지입니다.



강원 '미봉 고성 오션 리조트'

여름휴가 예약보장
오션뷰룸 100% 리모델링
무료숙박권 20매 선착순 50명 지급
제주·설악·해운대·나주·평창 등
전국 6곳 체인 리조트도 할인가 이용
선착순 마감 후에는 가격 인상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청정해안 강원도 고성 동해안 최북단 민통선 이남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에서 리조트 리모델링 기념 특별가 회원모집 중이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는 화진포 해수욕장, 금강산, 통일전망대, 김일성·이승만 별장이 함께 위치한 화진포, 설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과 인접하여, 아이들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갖춘 최고의 힐링 리조트로 계속 사랑받고 있다. 매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는 동해안 해안선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여 객실내에서 푸른 바다조망과 매일 아침 침대위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오션리조트이다. '제주 미봉리조트'는 제주의 자연을 품에 안은 곳으로 세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맑고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 한림읍 협재로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협재해수욕장, 협재동굴, 한림공원, 금릉해수욕장, 분재예술원, 제주경마공원 등의 관광지가 인접해 있다.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회원들은 이러한 고성, 제주도의 리조트 외에도 국내 유명 관광 지역인 경주·나주·평창·해운대·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의 체인 리조트를 정회원가에 이용할 수 있고 골프를 하시는 회원

해택으로 회원카드 지참시 제주지역의 4곳 골프장 이용시에는 인근 골프장을 주중 주말에 4인이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회원카드 발급, 인터넷 실시간 예약 서비스, 무료 숙박권, 해수욕사우나 무료 이용권도 증정한다. 특히나 몇 천만원 하는 회원권도 여름 시즌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 인데 금번에 가입 하는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회원권은 올 여름 성수기 예약 우선권이 있어 빨리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예약이 보장 된다.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는 현재 창립회원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특별 할인된 가격 16평 패밀리형은 1355만원을 585만원, 30평 스위트형은 1680만원을 796만원에 특별회원 모집중이다. 안전성을 위하여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에 지분등기를 하여준다. 금번에 가입하는 회원은 연휴 예약과 하계휴가 시즌예약이 선착순 예약 마감으로 서둘러서 가입한 후 여름 예약신청시 100% 예약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 특별혜택으로 해수욕사우나 무료 이용권 20매와 객실 무료 숙박권 20매를 제공한다. 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을 하며 마감 후 가격이 인상된다. 신청금 100만원을 농협 355-0086-9609-33(예금주 주식회사 미봉)으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02)541-0040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제공
①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가 객실 리모델링을 기념해 특별 할인가에 회원을 모집한다. 선착순 50명에게는 무료 숙박권 20매와 해수욕사우나 이용권 20매를 증정한다.
②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99㎡ 거실
③ '미봉 고성 오션리조트' 53㎡ 객실 내부 모습.

24시간 문자 상담
문의 : 02-541-0040
문자문의 010-3512-7792



유한양행, 임직원 가족과 도토리 묘목 심기 봉사

유한양행은 식목일을 기념하며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과 함께 '노을공원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4개월간 각 가정에서 정성껏 키워온 도토리 묘목을 공원에 옮겨 심었다. 숲 조성을 위해 산벚 나무, 가래 나무, 헛개 나무 등 다양한 묘목 심기도 진행했다. /유한양행



국민대, 美 학생 초청 '글로벌 공생 프로그램' 운영

국민대학교 HUSS 글로벌공생사업단이 지난 4일 미국 뉴욕 데모크라시 프렙 계열의 브롱스 프렙 고등학교(Bronx Prep High School)와 데모크라시 프렙 인듀어런스 고등학교(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 두 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국민대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MIP'에 신이슬 선수

동아오츠카는 전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신한은행 신이슬 선수에게 '포카리스웨트 MIP (Most Improved Player)' 상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신한은행 신이슬 선수에게 포카리스웨트 MIP 상을 시상했다. /동아오츠카



'JW중외박애상'에 순천향대 신응진 교수

JW중외박애상은 '제34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응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은 '제34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응진 교수(왼쪽부터), 'JW중외봉사상 수상자' 서울아산병원 전성훈 교수와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박종겸 이사장. /JW중외제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덕업일치' 시즌2 론칭

7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유저 참여형 소셜임팩트 콘텐츠 '크리에이팅(CREATing) × 덕업일치 프로젝트' 시즌2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팅'은 유저가 관심사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플랫폼이다. /스마일게이트

플랫폼 넘나드는 협력... CGV-KT, 콘텐츠 경쟁력 강화

스튜디오지니와 업무협약 체결
연간 4편 이상 협력작 확보 목표

CJ CGV는 KT 스튜디오지니와 콘텐츠 공동 투자 및 수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극장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스크린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극장 상영부터 부가판매권 유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수급 구조 구축을 목표로, 수급 초기 단계부터 협력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CJ CGV는 극장 플랫폼과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극장



KT스튜디오지니 정근욱 대표이사,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CJ CGV

단독 개봉을 담당하고, KT 스튜디오지니는 IPTV와 OTT를 통한 부가판매권 유통을 맡는다. 양사는 연간 4편

이상의 협력작 확보를 목표로 하며, 보유 콘텐츠를 포함해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극장과 플랫폼 간 상생 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선순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T스튜디오지니 정근욱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극장 개봉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작품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됐다"며 "KT 스튜디오지니의 독보적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양사가 함께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국엔컴퍼니, '빼는 혁신' 사내 공모

업무 효율 향상 아이디어 반영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빼는 혁신(Delete 혁신)' 아이디어를 사내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현범 회장의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 철학을 기반으로 지난 2016년 론칭한 그룹 차원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인 'Less for Better(레스포베러)'의 강화 차원이다.

그들은 2012년부터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이를

온라인 플랫폼 P.Studio로 확대해 제도를 정착시켰다. 플랫폼 오픈 이후 매년 약 100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아이디어 직접 '혁신 마일리지'를 투자하고 댓글 피드백을 통해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 실무를 총괄하는 오윤정 프로액티브컬처 팀장은 "하이테크 그룹을 지향하는 우리 그룹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상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안익성 LIG D&A 경영관리본부장, 남연식 KAI 재무본부장, 안종혁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전연보 한화시스템 재무실장, 차준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구매실장, 정재호 현대로템 재무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방산 5개사와 상생협약 체결

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대표 방산 기업 5개사와 손을 잡고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금융과 해외진출에 앞장선다.

수은은 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5사와 '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방산 5사가 대규모 방산 수출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납품실적을 확인해 주면, 수은은 협력사에 대출 한도 우대 및 금리인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은은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해 최대 1.2%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대출한도 또한 최대 20%p 확대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박건우 교수, 국제 팩트체킹 대회 1위

(송실대)

다중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개발

송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박건우 AI대학 교수 연구팀이 멀티모달 팩트체킹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학술대회 EAACL 2026에서 발표됐다. /이현진 기자 lhj@

이번 대회는 웹에서 수집된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는 멀티모달 팩트체킹 문제를 다뤘다. 박건우 교수 연구팀은 시각·언어 모델 기반의 다중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VILLAIN'을 개발해 근거 품질과 검증 정확도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인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이주형
- ◆중소기업중앙회 ◇임명 △전무이사 양찬희
-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급(1급) 전보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장 정석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신뢰성 운영본부장 박명희

부음

- ▲ 이만환씨 별세, 이미숙씨 남편상, 이슬기·이선기·이완기(서울경제신문 국제부 차장)씨 부친상 = 6일 오후 5시40분,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053-940-8197
- ▲ 한순덕씨 별세, 이강우(팝콘뉴스 부사장)·이동미·이천우(현대건설 부장)씨

- 모친상, 김영애·최영경씨 시모상, 김석한씨 장모상 = 7일 오전 4시42분,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31-961-9400
- ▲ 김원중(포스텍 명예교수·전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씨 별세, 이옥희씨 남편상, 김기현(MBC 기자)·김지현(재캐나다)씨 부친상, 한희정(전 동국대 연구교수)씨 시부상, 크리스 포터씨 장인상 = 6일 오후 7시20분, 대구전문장례식장 특302호실(7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장지 천주교안성추모공원, 053-242-7302
- ▲ 정영목씨 별세, 정원철(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외협력홍보부홍보부장)·정원욱·정원숙씨 부친상 = 7일 대구 수성구 모래야장례식장, 발인 9일 11시, 053-801-9999



지난 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중부교육지원청과 협력

건강한 미의식 형성 도와

아모레퍼시픽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 용산구 등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발견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협력한다. 청소년 시기의 복합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강한 미의식 형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밋유어뷰티' 캠페인, K뷰티 산업 현직자

와 연계한 진로 탐색 활동,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밋유어뷰티를 비롯해 각종 교육, 임직원 참여 멘토링 등을 마련하며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참여 학교와 학생 발굴,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등을 준비한다.

아모레퍼시픽 이상호 부사장은 "지역 사회 청소년들이 나눔을 발견하고 내면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정서적 안정과 주체적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글로벌 경제 '비명'... 중재안 수용해야



한용수의
돌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이미 두 나라를 떠나 전 세계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하며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공포의 카운트다운'을 강요 중이다. 협상이라기 보단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은 위험한 도박이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최근 알리안츠 리서치(Allianz Research) 보고서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2026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린 2.6%로 하향 조정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나비 효과 경제학(Butterfly Effect Economics)' 개념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작은 지정학적 변화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일로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보복 관세와 전쟁 여파가 맞물려 전 세계 가계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3.2% 급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배럴당 63달러)으로 돌아오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117달러,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시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일 기준 리터당 1961.56원으로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7.8%, 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15.9% 올랐다. 당분간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납사)' 수급도 비상이다. 정부의 수급 안정 발표에도 중동발 물가상승 불안감에 종량제봉투까지 수요가 늘며 일부 지자체는 구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산업계 피해는 수치로 나온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동률

은 평년 대비 30% 이상 급락했다. 트럼프가 벌인 전쟁에 한국 서민의 장비구니와 공장 굴뚝을 직접 타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류비와 물가 인상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지지울 방어에 급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만을 덮으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추산에 따르면 미군은 개전 초기 100시간 동안 작전 운용비로만 약 2900억 원을 소모했다. 무고한 민간인 살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전쟁범죄'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이 60일인데, 이 시점이 임박해오며 트럼프도 다급한 상황이다.

과국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았다.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와 파키스탄 등 국제사회가 마련해 양국에 전달한 '2단계 평화 중재안'이 유일한 실마리다. 이 안은 45일간의 임시 휴전을 통해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8일 오전 9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수천 발의 미사일 화염이 아닌 평화를 위한 극적인 약속이길 기대한다.

hys@metroseoul.co.kr

비상의 조건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의 5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메모리 가격 반등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임금 및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는 사측의 성과급 지급안에 반발하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고,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

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다. 노조는 실적 확대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업부 간 수익 격차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보상 기준'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지며 단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가. 반도체 산업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노사 갈등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에 있어 '기회의 시간'인 동시에 '시험의 시간'이

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급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 여건을 바탕으로 투자 여력은 충분하지만 내부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갈등은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생산 차질이나 의사결정 지연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날아오를 것인가'다. 실적이 급상승기류를 탄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고 조직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더 높은 도약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초격차'를 말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균열부터 메우는 일이 먼저일지 모른다.

h/yeon@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8일 (음 2월 2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릅니다. 60년생 하는 일마다 성에 안찬니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72년생 서류 문제로 하루를 소비하는 운입니다. 84년생 우울한 하루를 보냅니다.



49년생 주변사람의 사기를 더욱 조심하세요. 61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마치 태산 같 습니다. 73년생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일은 되도록 삼가세요. 85년생 돈 거래를 하지 마세요.



50년생 형제가 앞서 길을 갈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62년생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기 몫입니다. 74년생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86년생 우한이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51년생 허욕을 부리면 큰 것을 잃게 됩니다. 63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 집니다. 75년생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87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 배를 조심하세요.



52년생 선전을 위하여 분주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64년생 업무적으로 동분서주하 게 됩니다. 76년생 배우자와의 여행 수가 보이는 날입니다. 88년생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53년생 동기간으로 인한 망신 수가 다소 있습니다. 65년생 조심과 좌중을 요합니다. 77년생 마음이 헤아려만 업무 처리에 곤란함을 겪습니다. 89년생 물건파손을 특히 조심하세요.



54년생 서류상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66년생 감정보다 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78년생 호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0년생 애인과의 외출은 흥합니다.



55년생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67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입니다. 79년생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등은 이득을 창출합니다. 91년생 언행 일치를 명심하세요.



56년생 보람차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68년생 안방이나 현관문이 정복인 것은 절대 피하세요. 80년생 과음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92년생 하루가 즐겁고 한결 편안합니다.



57년생 하루가 편안하고 평탄한 날입니다. 69년생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게 됩니다. 81년생 서운함 감정이 크게 폭발합니다. 93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따라오고 이성문제도 잘 풀립니다.



58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70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 집니다. 82년생 돼지띠나 용띠의 도움이 이득을 달고 옵니다. 94년생 안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59년생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됩니다. 71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83년생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95년생 친구의 애인에게 고백을 들으니 입장이 난처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원진살



가족은 누구보다 가깝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입는다.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 사주에서 말하는 원진살은 이런 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원진살은 애써 잘해도 자주 어긋나는 관계를 뜻한다. 까닭 없이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는데 남이야 안 보면 그만이라지만 가족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리를 두기 어렵다. 그래서 원진살은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함께 생활해야 하니 자주 마주쳐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기 어렵다. 원진살은 감정이 쌓인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한다. 별 뜻 없는 행동과 말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큰 상처처럼 감정이 누적된다. 참다 보면 속이 터질 듯 불쾌해지고 어느 순간 큰 폭발을 일으킨다. 가족 사이의 원진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원진살로 인한 불화를 막는 해법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털어내면 감정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기대치를 낮추면 감정이 상할 것도 없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느끼는 맛은 다르다. 누군가는 맛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원진살이 평생 불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대를 덜 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화는 화복으로 변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벨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7		3
	5	4	6		
	3	9		4	2
4		1	2		
	6				1
		9	3		8
	7	2		1	5
		4	1	2	
5			2		7

5	1	8			4
			6	3	
				8	
		1	5		7
	5	7	3		8
	6		9	2	
3			1		
9			4	2	
1				4	2

2	9	8	7	6	5
6	8	7	9	1	2
7	9	1	9	6	8
8	7	9	6	8	1
2	1	2	8	9	7
9	6	8	2	1	8
9	2	7	1	8	9
1	2	9	6	7	8
8	8	6	2	9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쌍문동 26 일대... 방학천 품은 수변 주거단지 '탈바꿈'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35층, 1030세대 안팎 조성
선형녹지 조성·통합 산책로 연결
용도 상향에 용적률 300% 적용
연내 구역지정 목표로 절차 추진

방학천변에 위치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수변 중심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030세대 내외, 최고 3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쌍문동 26 일대는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아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도 도보권 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과 교통 여건을 함께 갖춘 주거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쌍문동 26 일대를 수변 중심 생활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 종합 구상도

- 초록 수변 생활권**
 - 1 도봉산둘레길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 2 방학천변 정비로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 주거환경 기반 구축**
 - 3 적정개발밀도 적용과 기반시설 정비
 - 4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계획과 스카이라인
- 보행생활 환경 조성**
 - 5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6 생활편의를 더하는 커뮤니티 시설 배치

자료/서울시



권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한 개발 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 중심 생활환경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방학천을 따라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천동아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지는 통합 산책로로 조성해 방학천 일대를 주민 일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생활 중심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수변공간 조성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제

공하면 공공이 설계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인근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우이신설선 연장 등 변화에 대응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300%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준용적률 완화 20%와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지 내 도로 체계도 보행 중심으로 재편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남북도로인 방학로7길을 공공보행도로로 전환해 수변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35층 내외의 유연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방학천 수변공간과 단지 경계부에는 수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단지 안팎이 소통하는 열린 단

지를 만들고, 방학천과 녹지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편의성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쌍문동 26 일대에 대해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77개소 가운데 170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쌍문동 26 일대가 방학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활력있는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해 도시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정비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남녀공학 전환 확대... 학교 선택권 넓힌다

서울시교육청

2027~2028학년도 계획 시행

2개년 통합 신청해 준비기간 확보

화장실 등 필수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 방식을 개편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9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478교(67.4%), 단성 학교는 231교(32.6%)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 신청 방식을 개편한 ‘2개년 통합 신청 체계’ 도입이다. 학교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가운데 원하는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에 향후 2년치 대상교를 미리 선정해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8학년도 전환교는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시설 공사과 교직원 연수 등 내실 있는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행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남녀 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필수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학교별 여건과 사업 규모에 맞춰 지원한다. 또 성별 교육차 해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1교당 매년 8000만원씩 3년간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환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지도와 상담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1교당 매년 2000만원씩 3년간 총 6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신청은 2026년 5월 말까지 받는다.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배치 계획과 전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올해 7월 중 전환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

신규특례 19건 담아 제도 실효성 강화

고양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른바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장기간 국회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후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를 통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까지 넘어선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2022년 출범 이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권한과 재정 구조에 묶여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대한민국특례시지원특별법안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무 특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특례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사교육 의존 낮추고 공공 대입상담 강화

교육부·대교협, 상담교사단 500명 위촉
전화·온라인 통해 1대1 맞춤상담 지원

사교육 의존을 낮추기 위해 공공 대입상담이 5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챗봇 도입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신설, 아동양육시설 대상 방문 상담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상담교사단 운영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평한 대학 입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00-1615를 통해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대입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대입상담교사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입상담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우선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이 오는 7월부터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새롭게 제공된다. 상담 신청 학생은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와 협업해 마련한 상담 기준과 평가 체계에 맞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말에는 ‘어디가’에 AI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인 챗봇도 신설된다.

/이현진 기자

해돋이 / 06:08
해질녘 / 19:01

오늘의 날씨

4월

8일 (수)

음력 : 2월 21일

수도권 날씨

3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도, 7년 만에 이란산 원유·가스 수입 재개... ‘에너지 실리외교’

▲IMF 총재 “전쟁으로 석유 공급 13%↓... 물가 상승·성장 둔화 불가피”

▲오픈AI, 주 4일 근무·로봇세 제안... “기술 번영 모두가 누려야”

▲달 뒷면 품은 아르테미스 2호, 무사 귀환길 올라

/사진 뉴스스

▲엔트로픽, 사모펀드들과 AI 합작사 설립 추진... 기업 고객 확대 전략

▲프리다 칼로 작품들 스페인 반출에 멕시코 반발



식품·유통업계
포장재 공급 불안에
탈 플라스틱 전략
L1



Life



삼천당제약
경우용 위고비
FDA 사전미팅 승인
L2

“무독성·초정밀 코팅 ‘iCVD’... 의료기기에 새 가치 더할 것”

속깊은 人터뷰

임성갑 나노이시스 대표

멸균 기능을 가진 콘택트렌즈가 있다면 어떨까. 매일 눈에 직접 넣는 렌즈가 시력 교정은 물론, 눈으로 침투하는 각종 세균을 스스로 막아줄 수 있다면 말이다. 이제 바다와 수영장에서 결막염 걱정 없이 렌즈를 착용하고, 오히려 눈병을 막기 위해 렌즈를 착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일은 국내 한 벤처기업에 의해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기능성 고분자 특수 코팅을 활용해 항균 콘택트렌즈를 개발 중인 기술기업 ‘(주)나노이시스(NANOAEGIS)’다.

나노이시스는 ‘개시제를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법(iCVD)’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나노이시스 설립자이자 카이스트(KAIST) 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임성갑 대표는 2010년 iCVD 기술을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

iCVD는 쉽게 말해, 신개념 ‘코팅’ 기술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팅은 유기 용매에 코팅될 물질을 녹여 기판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iCVD는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개시제’라는 도우미를 쓴다. 가스(기체) 형태의 코팅제가 개시제의 도움을 받아 코팅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에 마치 서리가 맺히는 것처럼 도포된다. 손상 없이 코팅이 가능해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년간 iCVD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알려진 임성갑 대표는 지난해 ‘(주)나노이시스’를 설립, 항균 콘택트렌즈를 시작으로 iCVD 기술의 상용화에 본격 뛰어들었다.

임 대표는 “첨단 바이오 기술이 생겨나고 의료기기도 다양화 되고 있는 지금, iCVD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iCVD 기술로 바이오, 의료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VD를 도입한 계기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박사 학위를 하던 중 iCVD의 충분한 가능성을 알게 됐다. iCVD 기술은 2000년대 초반에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가 됐고, 2010년에 귀국하여 KAIST에 자리잡으면서 이 기술을 한국으로 들여왔다. 혼자 연구를 하고 가르쳐온 것도 벌써 17년차에 접어든다. 처음 5년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에 썼고, 이후 iCVD가 쓸 만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이



임성갑 나노이시스 대표이자 카이스트(KAIST) 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가 메트로미디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규준 기자

국내 최초 iCVD 도입... 기술 입증 항균 콘택트렌즈 개발기업 설립

실온코팅으로 기재 제한없이 적용
얇은 흡착방식... 형태·촉감 유지
인체 접촉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
방수·멸균·오염방지 등 기능 확보

세균성 감염 막는 콘택트렌즈 개발 두 달 이상 보관해도 항균 그대로

연구회 설립, 워크숍 등 기술 알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길

제 학계와 산업계에서 iCVD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iCVD의 장점을 쉽게 설명해달라.

“수백도 고온 환경에서 코팅을 한다고 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물체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반도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CVD 기술은 유리, 세라믹, 금속과 같은 무기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iCVD는 대부분 실온에서 코팅하기 때문에 기재에 손상 없이 다양한 곳에 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종이, 옷, 플라스틱이나 생체 조직 등 다양한 기재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리가 내리듯 물체 위에 얇게 흡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의 형태와 촉감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팅을 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iCVD 기술은 이미 바이오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임 대표는 세포 배양접시를 iCVD 공정으로 코팅해 생쥐 등에서 얻는 동물 유래 물질 없이도, 세포가 배양접시에 잘 부착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노프리(Xeno-free)’ 배양 기술을 개발했다.

-iCVD가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각광 받는 이유는 뭔가.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자. 반도체는 평평한 코팅이고 대량 생산이 모듈화 돼있다. 특히 반도체 패널 하나의 가격이 수 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코팅 공정이 고가여도 큰 상관이 없다. 무기물에 도포하기 때문에 수 백도의 고온 코팅도 가능하고, 독성 여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로 가면 상황이

완전 바뀐다. 일단 평평한 모양은 거의 없고,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코팅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조건도 많다. 게다가 대부분 제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여 손상 없이 코팅하기 어렵다. 특히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독성이 없어야 하며, 맞춤형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코팅 기술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부분 일회용으로 제품 가격이 매우 싸서 코팅 공정이 비싸면 안 된다. 단언컨대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iCVD 밖에 없다.”

-iCVD로 어떤 기능을 적용할 수 있나.

“콘택트렌즈, 스탠트, 카테터,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부터 생리대, 기저귀까지 우리 몸에 들어가거나 닿는 모든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방지, 멸균 기능은 필수다. 나노이시스가 확보한 플랫폼에는 방수기능, 멸균기능, 오염방지, 발수성, 절연성, 보호기능 등 iCVD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대단히 많다.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바이오, 의료기기에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나노이시스는 올해부터 iCVD 상용화에 본격 나섰다. 첫 타깃 제품으로 콘택트렌즈를 선택했다. 렌즈의 편안함과 투명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균 기능이 부여된 신개념 콘택트렌즈다. 임 대표는 콘택트렌즈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로 iCVD 상용화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왜 콘택트렌즈인가.

“어느 걸그룹 멤버가 각막염으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

타까웠던 적이 있다. 세균성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감염이 되었을 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이러한 감염성 각막염은 전체 환자 가운데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나노이시스가 개발하고 있는 콘택트렌즈는 각종 곰팡이, 플랑크톤은 물론 가시아메바와 같은 여러 유해성 박테리아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수한 멸균 기능을 가진다. 또 두 달 이상 보관해도 항균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 안전성을 확인했다.”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나.

“제품의 성능은 이미 확인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통해 제품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선은 기존 렌즈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제품이 인정을 받으면 나노이시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

“창업을 하고 나니 많은 기업, 투자처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쪽에서는 필요로 하는 표면 기능이 많지만 그 동안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코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큰 상태다. 나노이시스는 다양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체 브랜드로 의료기기 등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 덴마크 등 유럽 기업들과의 공동개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임 대표는 KIST 내에 ‘차세대 고분자 박막 기반 표면기술연구회’를 설립하고 지난 2월 처음으로 ‘iCVD 기반 고분자 박막을 통한 소재 표면 기능화 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iCVD의 선구자로서, 이 기술이 더 많은 분야에 쓰이도록,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연구회는 왜 설립했나.

“지난 15년간 연구를 지속하면서 iCVD 기술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 이제 자생적으로 하는 곳도 점차 생겨나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지만 iCVD와 관련한 커뮤니티는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연구회를 만들게 됐다. iCVD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술이다.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iCVD가 다양한 필드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알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BTS ‘스윘’, 빌보드 싱글 2위...디지털 음원 판매는 1위
▲신규·박근혜 ‘후배 사랑’ 결실...‘연극내일 프로젝트’ 창작극 3편 탄생 /사진 뉴스시스

▲이종범 “‘최강야구’ 합류 후회...KBO 복귀하고파”
▲김혜성, 선발 복귀전서 2안타 1볼넷에 호수비까지 ‘맹활약’

▲고향사랑기부로 프로바둑기사와 한판...영암군 답례품 눈길
▲여자배구 FA 공시 초읽기...‘최대어’ 정호영 잡기 본격화